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December 15, 2016 Vol. 558



다함께 '할렐루야'를 합창하는 가운데 성탄절 축하 '연합찬양예배'가 은혜롭게 마무리됐다.

성탄절 축하 '연합 찬양예배'

샌퍼난도 밸리 교협 주관
장학금 시상식도 함께 진행

샌퍼난도밸리한인교회교역자협의회(회장 김영일 목사, 이하 밸리 교협)가 주관하는 성탄절 축하 연합찬양예배와 장학금 시상식이 웨스트힐장로교회(담임 김인식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 2부 찬양제, 3부 장학금 수여식 순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밸리지역 교회들이 연합해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나눴다. 또 차세대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1부 예배는 서오석 목사(밸리 교협 총무, 나성평화교회 담임)의 사회로 대표기도에 하모세 목사(고백하는교회 담임), 성경봉독에 김선일 목사(서기, 남가주마라톤교회 담임), 설교에 김영일 목사(밸리교협 회장, 드림교회 담임), 헌금기도에 나형일 목사(그이름교회 다임), 밸리지역 목회자 부부의 헌금 특송 등의 순서로 진행된 후 김창수 목사(원로목사회 회장)의 축도를 끝으로 1부 예배 순서를 마쳤다.

김영일 목사는 '빈 방 있습니까?"(눅 2:1~7) 주제의 설교를 통해 "생명의 떡이시요 영생의 주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신 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빈 방조차 구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다"면서 "내 자랑과 욕심,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며, 우리와 동행을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의 빈 방을 내어드리자"고 전했다.

이어진 2부 찬양제는 김인식 목사의 환영인사와 함께 웨스트힐장로교회 믹투스 찬양단의 'soon Ah Will Be Done'(작곡: R, Nathaniel Dett)로 문을 열었다.

[관련기사 3면에 계속]

'힌두교' 국가 네팔, 기독교 인구 증가

기독교 개종 인구 약 1백만 명…교회 수는 약 8천 개

2008년 공화정으로 힌두교 국가에서 세속국가가 된 이후 네팔의 기독교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고 英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현재 네팔의 기독교 개종 인구는 약 1백만 명이며 이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니케이아시아리뷰(Nikkei Asian Review) 보고서에 따르면, 네팔에는 현재 약 8,000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

특별히 기독교는 네팔 고원에 살고 있는 키라트족이나 달리트족 등 소수 부족들 사이에 많이 전파되고 있다.

이들은 힌두의 카스트 제도에서 '불가촉 천민'에 해당되는 수드라 계급에 속해 있다.

네팔기독교연맹(Federation of National Christians in Nepal, FNCN)은 네팔 기독교인들의 60%가 달리트 출신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리트족 출신의 딜 마야(70)는 교회에서 기도한 이후 남편의 치유를 경험하고 기독교로 개종했다.

마야는 니케이아시아리뷰와의 인터뷰에서 "한 번은 남편(단 바하두르)이 매우 아팠는데, 그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다. 누군가 제게 교회에 가서 기도하라고 알려준 것이 교회에 나가게 된 계기"라고 말했다.

그녀는 "기도로 남편이 나았고, 나 역시 치유 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동체가 날 받아주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전에는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나를 받아들여주었다"고 간증했다.

[관련기사 9면에 계속]



LA동부교역자협의회가 12일 할렐루야한인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LA동부교협 정기총회 개최

신임회장 김신일 목사 선출

LA동부교역자협의회가 12일 총회를 열고 김신일 목사(유니온교회 담임·왼쪽에서 두 번째)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최준우 목사(엠마오장로교회 담임)가 부회장으로, 이승준 목사(하나로커뮤니티교회)가 총무로 각각 선출됐다.

김신일 신임 회장은 "LA 동부지역 목회자들과 교회 연합, 차세대 리더들을 위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LA 동부지역 교회들이 연합해 체육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LA동부교협은 매년 부활절 연합예배와 성탄연합성가제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신임회장 김신일 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남침례신학교를 거쳐 애즈베리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2015년부터 유니온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이인규 기자

"남가주한인목사회 장학금 수여식"

오직예수선교교회 이전 감사예배도 함께 열려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구 목사, 이하 목사회) 장학금 수여식 및 오직예수선교교회(담임 샘신 목사) 이전 감사예배가 11일(주일) 오후 이 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1부에서는 오직예수선교교회 이전 감사예배가 드려졌고, 2부에서는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한 목사회 주관 지정 장학금 전달식이 이어졌다.

1부 이전 감사예배는 이 교회 담임인 샘신 목사의 인도로 최명상 목사(목사회 부회장) 대표기도, 심진구 목사 성경봉독(목사회 부회장), 김소연 목사외 찬양율동, 엄규서 목사(목사회 직전회장) 설교, 이경호 목사(목사회 부회장) 특송, 백지영 목사(목사회 증경회장)와 송영일 목사(목사회 부회장) 축사, 김종용 목사(목사회 49대 수석부회장)와 김훈 목사(토랜스순복음교회 담임) 권면, 샘신 목사 광고, 다함께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송을 합창한 후 류당열 목사(목사회 증경회장)의 축도를 끝으로 1부 이전 감사예배를 은혜롭게 마쳤다.

엄규서 목사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눅5:1~11) 주제의 설교를 통해 "비록 과거에는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부흥이 임하게 된다"며 "우리들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베드로는 능력자이신 주님을 만나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 한가득 고기를 낚을 수 있었다.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부흥의 역사가 오직예수선교교회에도 강력하게 임하길 기도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4면에 계속]

"예수영맥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남가주 교계 단체 대표들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야기된 조국의 혼란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간절히 바라며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회를 18일 나성동산교회에서 연다"고 밝혔다.

남가주 교계 단체 연합 '조국 위한 기도회'

12월 18일(주일) 오후 4시…나성동산교회서 개최

남가주 교계 단체들이 오는 18일(주일) 오후 4시 나성동산교회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연다. 이들은 조국의 탄핵 정국 속에서 정치적 혼란은 물론 국론분열, 좌우대립, 안보 위기 문제를 놓고 먼저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고 한국의 위정자들과 국가 안정 등을 위해 기도할 예정이다.

최순길 남가주교협 회장은 "성경을 보면 교회가 부패할 때 나라도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구 남가주목사회 회장은 "진보건 보수건 관계 없이 조국의 안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강순영 JAMA 대표는 "한국의 영적 분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이들은 "나라와 민족,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남가주 목회자들이 회개하도록, 새로이 국정을 맡게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도울 많은 기독교인 조력자들이 세워지도록, 이념과 정쟁으로 나뉘어지는 국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용서와 화해가 펼쳐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호시탐탐 전쟁을 원하는 북한 정권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자비와 은혜가 넘치도록, 한국에 종식하고 있는 북한의 간첩들의 속임수에서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기도회는 남가주교협, 남가주목사회, 남가주여성목사회, 남가주장로협의회, JAMA 등이 함께 한다.

김준형 기자



2017년 한민족 통곡기도대회를 준비하는 (왼쪽으로부터)손인식 국제대표, 박희민 공동대표, 송정명 공동대표가 8일 윌드미션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북한 위한 전세계 한민족 통곡기도대회"

그날까지선교연합(UTD-KCC) 주최…2017년 3월 1일 서울서

그날까지선교연합(UTD-KCC)이 한반도 통일과 북한 구원을 위한 한민족 통곡기도대회를 오는 2017년 3월 1일 한국에서 개최한다. 2004년 미국 LA에서 1,600명의 목회자와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통곡기도대회가 처음 열리고 2006년 한국 서울에서도 2만 2,0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기도회가 열린 바 있다.

그 이후 미국, 한국 곳곳에서 지역교회 중심으로 크고 작은 통곡기도대회가 계속돼 왔는데 올해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이 한국에서 함께 기도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통곡기도대회에서는 한반도 통일과 북한 동족의 해방과 구원, 북한 주민들의 안전한 탈북과 보호, 북한 동족과 탈북자를 위한 한국교회의 기도운동과 헌신 등을 위해서 기도한다. 또 대통령 탄핵 등 비상시국 속의 조국이 하나님의 올바르고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꼽힌다. 기도회와 함께 주제별 메시지, 탈북자 및 북한 사역자들의 간증, 특별 합창 순서도 있다.

이 대회는 3월 1일 치유하는교회(서울 강서구 화곡동, 담임 김의식 목사)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열린다. 주최 측은 해외 참가자의 경우 1월 말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목회자들이 참가할 시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항공료를 일부 지원할 계획도 있다.

손인식 국제대표는 "기독교인에게 기도는 최우선의 사명"이라면서 "이 기도회가 봉화가 되어 북한을 향한 기도가 전국과 전 세계로 들불처럼 번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949-297-3788
*카카오톡 아이디 : utdkcc
*이메일: utdusa21@gmail.com

김준형 기자



둘로스선교교회가 예배 장소 이전 감사예배를 11일 드렸다.



황의정 담임목사.

"둘로스선교교회 이전 감사예배"

둘로스선교교회가 한인타운 샤토 길과 6가에 있는 새언약초중고등학교 강당(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으로 예배 장소를 이전했다.

이 교회가 기존에 사용하던 킹슬리 길과 6가(548 S. Kingsley Dr. #200 Los Angeles, CA 90020)에는 사무실만 남겨두며 주일예배와 새벽예배, 수요제자훈련학교, 금요찬양예배 등 모든 예배는 새 장소에서 드린다.

교회 이전을 감사하는 새 성전 이전 감사예배에는 이 교회 성도뿐 아니라 교회가 속한 미주성결교회 소속 목회자들이 참석해 축하를 전하고 식순을 맡았다. LA지방회 부회장 최은호 장로(연합선교교회 담임)가 대표기도 하고, LA지방회 서기 김종호 목사(예향선교교회 담임)가 성경 출애굽기 17장 8-16절을 봉독했다. LA지방회장 오서택 목사(뉴송교회 담임)가 "여호와 닛시"란 제목으로 설교한 후 미주성결교회 부총회장 이상복 목사(연합선교교회 담임)가 격려사, 신원철 원로목사(제일성결교회)가 축도했다.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을 지낸 강용순 목사(온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도 참석해 축사했다.

이 교회는 2004년 2월 황의정 목사가 11명의 성도와 함께 개척했다. 지난 12년 동안 LA를 복음화함과 동시에 황의정 목사가 내적 치유 사역을 활발히 펼쳐 수많은 이민가정의 회복을 도왔다.

황 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으로 Ph.D.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미성대학교 대학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한편 둘로스선교교회는 오는 1월 5일(목)부터 8일(주일)까지 평일에는 저녁 7시 30분, 주일에는 오후 4시에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초청 신년축복성회를 연다.

김준형 기자



애나하임장로교회 미주장신대에 발전 기금 쾌척

애나하임한인장로교회(담임 신윤석 목사)가 10일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이상명 총장)에 2,500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 교회 내의 한나, 샬롬, 베드로, 아가페 선교회원들은 지난 1년간 야드 세일을 하고 비빔밥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학교 발전 기금으로 쾌척했다. 애나하임장로교회는 미국장로교(PCUSA) 소속 교회이지만 한인 신학교의 발전에 뜻을 모아 해외한인장로회(KPCA) 산하 신학교인 미주장신대를 후원한 것이다.

www.saseducation.weebly.com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학교, 어학원, 종교특례대학, 일반대학, 데이케어/프리스쿨, I-20신청, 연방인가, 온라인교육사이트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써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 (949) 329-8222
Email :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내 조국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구국기도회

1.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남가주목회자들이 회개합니다.
2.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새로이 국정를 맡게 될 황교안 대통령 대행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조력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4. 이념과 정쟁으로 나뉘어지는 국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용서와 화해가 펼쳐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5. 호시탐탐 전쟁을 원하는 북한의 정권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대만민국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6. 대한민국에 종식하고 있는 북한의 간첩들의 속임수에 깨어서 기도하는 크리스천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 제목 : "주여 일어나소서" (마가복음 4:35~41)
● 설교 :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 일시 : 2016년 12월 18일(일) 오후 4시
● 장소 : 나성 동산 교회
(2525 James M Wood Bl., LA, CA 90006)
(Hoover & James M Wood)


박성규 목사



● 주 관 :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 공동 주최 : JAMA, 남가주 여성 목사회, 남가주 장로 협의회, 미주 기독교 총 연합회, 한국기독교 총 연합회 미주총회, 민주 평화 통일 자문위원회 엘에이 협의회, 이북 오도민 협의회, 황해도 도민회, 삼일운동 여성 본부, 광복회
● 문의 전화 : 남가주 한인 목사회 T. (310)404-6219



새롭게 직분을 받은 LA사랑의교회 임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A사랑의교회 임직예배 드려"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LA사랑의교회가 임직예배를 드렸다.

11일 주일예배와 함께 드린 임직예배에서는 시무장로 3명, 명예장로 2명, 안수집사 19명, 시무권사 27명, 협동권사 1명, 명예권사 4명이 임직했다.

예배에서는 김기섭 담임목사가 '리더는 관점이 달라야 한다'(빌 1:12~18)란 제목으로 설교했고 곧이어 임직예식이 거행됐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 순으로 각각 임직했고 장희근 장로가 임직자 대표로 인사했다.

박헌성 목사(나성열린문교회 담임)가 권면, 정희주 목사(PCA 서남노회 증경노회장)와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가 축사를 전했고 김상선 목사(PCA한인교회협의회 상임총무)가 축도했다.

한편 이 교회는 새해를 맞이해 오는 1월 2일부터 7일까지 신년 특별 새 뜻 부흥회를 저녁 7시 30분 버질중학교 강당을 빌려 연다. 설교자는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담임), 조셉 오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김태형 목사(ANC온누리교회 담임), 박성근 목사(로스앤젤스한인침례교회 담임) 등이다.

김준형 기자



샌퍼난도 밸리 교협은 19명의 학생들에게 총 17,500불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샌퍼난도 밸리 교협 장학금 수여식

[1면으로부터 계속]이어 밸리연합교회의 '사랑의아기', 밸리한인커뮤니티교회의 살롬성가대의 'WE Have Built This House on Faith'(작곡: Joseph M. Martin), 은혜와평강교회 찬양단의'동방박사의 경배'(작곡: John H. Hopkins.Jr), 서홍석 집사의 섹스폰 연주, 에버그린선교교회·제일성결교회 연합찬양대의 '평화'(작곡:Otis Gruber) 순으로 찬양제가 이어졌다.

3부 장학금 수여식은 문일명 목사의 사회로 김영일 회장과 김인식 목사(장학위원장)가 총 19명의 학생들에게 17,500불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15명보다 4명이 더 늘어난 19명에게 장학혜택이 주어졌다.

김인식 목사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19명의 학생들에게 귀한 사랑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내년에도 참여와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학기금은 에브리데이교회, 웨스트힐 장로교회, 밸리연합감리교회, 은혜와평강교회, 만남의교회, 서홍석치과, 밸리축구협회, 드림교회, 고백하는교회가 협찬했다.

1부 예배, 2부 연합합창제, 3부 장학금 수여식이 끝난 후에는 다함께 '할렐루야'를 합창하며 모든 순서를 은혜롭게 마쳤다.

이인규 기자



수상자 및 관련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으로부터) 대상 최재환(네 번째), 오병익 기독일보 이사장(다섯 번째), UBM교회 앤드류 김 담임목사(여섯 번째).

'구약에서 길을 찾다' 에세이 공모전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대상 최재환(게이트웨이신학교), 최우수상 최연애(탈봇신학교) 등 수상

기독일보 주최, UBM교회(담임 앤드류 김 목사) 주관, 블리스여행사(사장 스티브 정) 후원 권혁승 교수 초청 '구약에서 길을 찾다' 주제 세미나가 지난 10월 22일 UBM교회에서 열린 바 있다.

이 세미나 참석자 대상 에세이 공모전 당선작 발표 및 수상식이 12일 오전 본사에서 열렸다.

대상으로는 최재환 학생에게 돌아갔으며 부상으로 자동차가 주어졌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최연애 학생에게는 장학금 천불이 전달됐다.

이인규 본사 사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수상식에서 앤드류 김 목사는 이 공모전 진행 취지에 대해 "신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다"며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현장 목회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병익 본지 이사장은 "이 세미나를 통한 에세이 공모전에 당선된 여러분들은 이미 보통사람들이 아니다"며 "가르치고(Teaching) 전도하고(Preaching) 치유(Healing)하는 미니스트리의 리더들이 되어 미국을 가르치고 이 땅을 고치는 훌륭한 사명자들이 되어달라"는 말로 격려사를 대신했다.

*수상자 명단: 최재환(게이트웨이(부상:자동차)/최연애(탈봇(부상: 천불)/우수상(다니엘 노(게이트웨이), 티모디 송(플러)-부상 각 5백불/특별상(명승권(그레이스미션(부상: 6백 5십불 상당 노아방주 성지순례 여행상품권)/금상(홍윤선(그레이스미션(부상:아이패드에어2)/은상(조안나 김(베데스다(부상: 톰라이트 주석)/동상(앤드류 양(탈봇), 강덕수(플러), 조앤 리(베데스다), 김미경(베데스다), 박주범(베데스다), 이승철(베데스다)-(부상: 기프트 카드)

이영인 기자



샌퍼난도 밸리 교협 정기총회가 열려 신임회장 문일명 목사(앞줄 왼쪽으로부터 세 번째)가 선출됐다.

샌퍼난도 밸리 교협…신임회장 문일명 목사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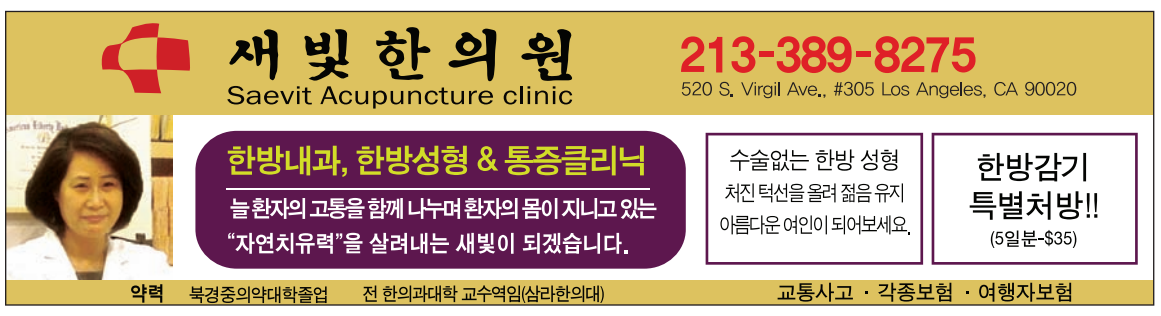
샌퍼난도밸리한인교회교역자협의회(이하 밸리교협)가 총회를 열고 2017년도 신임회장으로 문일명 목사(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를 선출했다.

13일 오전 에브리데이교회(담임 최홍주 목사)에서 열린 총회는 1부 예배와 2부 회무처리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일 목사의 인도로 이정현 목사(만남의교회 담임)가 기도하고 문일명 목사가 '아둘의 바켓리스트'(잠언 30:1~8) 주제로 설교했다. 이어진 2부 정기총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문일명 목사를 회장으로 추대했다.

문 목사는 "아름다운 교회공동체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전임 회장님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기억하고 열심히 일하겠다"며 취임사를 대신했다.

이인규 기자











이전감사예배를 마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 앞줄 왼쪽으로부터 네 번째) 담임 샘 신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 장학금 수여식"

오직예수선교교회 이전 감사예배도 함께 열려

[1면으로부터 계속] 샘 신 담임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민족 목회 감동을 주셨다"며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 다함께 참여 하여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기도를 당부했다.

이어 김영구 목사회장 사회로 진행된 2부에서는 목사회 주최 지정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다.

참가교회로는 윌셔크리스천교회(담임 엄규서 목사), 나눔과섬김교회(담임 김종용 목사). 나눔장로교회(담임 김영구 목사) 등이 함께 했다. 특별히 이번에는 지정 탈북민들에게도 장학금을 수여하며 그들의 정착을 도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장학금 수여식 외에도 올 한해 목사회를 위해 헌신한 관련자들에게 지도자상, 목회자상, 공로상, 언론인상 등을 수여했다. 또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편찬사업 추진을 위해 편찬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했다.

편찬위원장으로는 직전회장 엄규서 목사와 현 회장 김영구 목사, 편집위원장에는 김종용 목사, 편집위원에는 기독일보, 크리스천 헤럴드, 크리스천 비전 등이 위촉됐고, 증경회장인 류당열 목사와 백지영 목사는 감수위원장으로 각각 위촉됐다.

이영인 기자



11일 오직예수선교교회에서 열린 목사회 주최 장학금 수여식을 마친 후 관련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주기독한의사협회 이·취임식 및 송년예배 · 정종오 회장 취임



총회를 마친 회원 및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 앞줄 왼쪽으로부터 두 번째) 신임회장 정종오 원장.

미주기독한의사협회가 11일 오후 마가교회에서 회장 이·취임식이 열린 가운데 신임회장 정종오 원장이 취임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전동석 L.A.카운티 커미셔너와 정광석 재미영화인협회장, 신관수 인천공대교수, 김영리 근막치료학회장, 김용훈 전 호남향우회장 등도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 횃불선교회 정희욱 목사(한의사)는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한해를 보내며 회원간의 연합을 도모하는 감사예배를 통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 협회는 매월 둘째 주일 오후 5시에 예배와 4시간 무료보수교육을 실시한다.

*문의: 213-500-6393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12일 패서디나의 웨스틴 호텔에서 열린 컨퍼런스가 열렸다.

"21세기 한인교회의 역할"

ITS 이승현 총장, NTS 주최 목회자 세미나 주제 강의

NTS(New Theological Seminary of the West)가 12일 한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연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ITS(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의 이승현 총장은 "21세기 한인 이민교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이 컨퍼런스에는 한인 목회자들이 주로 참석했지만 PCUSA(미국장로교) 내 남가주-하와이대회, 그 산하의 로스랜초스 노회, 샌퍼난도 노회, 샌가브리엘 노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실시간 통역으로 강의를 들으며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총장은 "요즘 구약학계에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관심이 많은데 근래 미국교회의 교세 감소나 여러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시대가 마치 포로기와 같다는 생각도 든다"며 강의의 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포로기의 대표적 인물인 다니엘을 통해 21세기 한인 이민교회의 역할을 찾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출애굽 모델이 일부분 맞지만 모든 이민자에게 적용되진 않는다고 했다. 이민생활의 성공을 목표로 쉼 없이 달리는 부모로 인해 자녀들은 부모 없는 자녀처럼 자랐고 부모의 헌신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녀들에겐 죄책감과 불안감을 안겨 주었다. 완전한 미국인으로 여겨질 줄 알았던 한인 2세나 3세가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거나 인종차별을 겪기도 한다. 이 총장은 "출애굽 모델의 신학적, 신앙적 제한성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민 1.5세인 자신에게는 이민자의 사명에 관해 다니엘서가 매우 유용한 접근법을 제공해 주었다고 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포로기는 부정적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기간 혹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기간으로 여겨지곤 했다. 에스더서만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다루면서도 '하나님'이란 이름은 적혀 있지 않다.

그러나 좀 더 앞선 시기의 포로인 다니엘서를 보면 포로는 하나님의 선택이며 소명이다. 포로기는 시련과 성공이 교차하는 무대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준 분은 하나님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들 가운데 선택을 받아 당시 세계의 중심에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고 출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포로 생활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자 그분의 선택이었다. 또 포로들의 귀환을 허락하는 고레스 칙서 이후에도 다니엘은 힛데겔 강가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포로 생활을 선택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가운데 그 유명한 다니엘서 10장의 계시를 받는다. 다니엘에게 포로 생활을 소명이었고 하나님께서 부재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시간이었다.



이승현 박사
ITS 총장

이 총장은 여기서 이민교회의 독특한 소명을 도출했다. "이민은 여러 문화의 경계 사이에서 새로운 무엇이 잉태되는 장소"라면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민족을 위해 간구하는 선지자였듯이 한인교회도 미국을 위한 소명과 민족을 위한 소명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인교회가 후손들이 미국 주류 사회로 진출하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해왔고 미국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도록 영적 교육도 제공해 왔지만, 이제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예언자적 사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이 총장은 달라스빛내리교회 전 담임이자 내러티브 설교로 유명한 이연길 목사의 아들로, 텍사스주립대학교에서 철학, 프린스턴신학교에서 목회학을 공부하고 리치몬드 유니온신학교에서 구약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ITS는 제3세계 신학생들을 양성해 모국으로 파송하겠다는 비전을 품고 1982년 故 김의환 박사가 설립했으며 2006년에 ATS로부터 정회원 인가를 받았다.

김준형 기자



대인관계의 가치기준

야고보서 2:1~2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야고보서 2:1~20

1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2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3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4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5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6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7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훼방하지 아니하느냐 8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10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2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14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 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19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0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성령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로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더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젖동생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믿어지게 하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많은 체험과 감동으로 깨닫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섬기는 생활로 평생을 성자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은 교리적인 바탕위에 행동하는 신앙이 있어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A.D 62년쯤 기록된 것으로 그 당시 로마의 네로황제는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할 조짐이 있었고 그것을 직감한 야고보는 앞으로 교회가 대 로마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횡포와 환란, 핍박을 당하며 많은 고난과 순교자가 있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행동하는 믿음을 지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애타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 주셔서 성령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회개 시켜주십니다. 또 인간의 의지적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감동하게 하심을 따라 믿어지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1에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이샤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더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과 동일한 신앙고백을 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는데서 시작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신앙고백을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신앙고백은 말로 하는 것과 생활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특히 입술로 하는 신앙고백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신앙고백이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예수님께도 보람이 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도 요긴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 1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을 통하여 믿어지게 하셨고 가꾸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받았으니 사람을 대할 때 겉치레만 보고 차별대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인관계의 기준은 상대방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영혼이 나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면 그는 곧 형제요, 자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과 뜻이 하나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둔 각 지체로서 머리에서 내려지는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만일 그 상대방이 성령을 받았다면 같이 협력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욱 합심 전력해야 할 것이고 또 반대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 영혼은 지옥가게 되는 것이니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 영혼이 생명 길로 구원 얻게 되도록 전도하는 일에 물질은 물론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천국가게 하는 영적체질신앙으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했습니다. 가난해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생활의 밑바닥을 허덕이고 있을 때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성령으로 가꾸어 믿어지는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기대 가운데 쓰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모든 조건을 아낌없이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 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4~16절은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보고 말로만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빈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가증스러운 거짓말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염려하고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속셈을 하거나 하면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뿐더러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가짜 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재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약속은 "네 후손을 통하여 번성하게 되고 인류에게 보낼 메시야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삭을 아무 의심 없이 바칠 수 있었으며 설혹 이삭이 재물로 바쳐져서 잿더미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리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뜻에 일치하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각 지체로서 그들의 육신의 껍데기보다 영혼을 먼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본문 8-9절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대인관계는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다음 세상은 영원한 곳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며 이들은 예수님의 뜻에 맞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35년 선교방송인의 예리함과
감성과 영성을 담은 시인의 따뜻함으로
성도들과 눈을 맞추며 전한
시리즈 복음설교 52편 !

쉽고 부드럽고 아름답게
바르고 분명하게
복음(福音)을
전하는 교회

담임목사 이 동 진
Senior Pastor Lee, Dong Jin
- 극동방송 아나운서(82~95)
- 미주복음방송 편성국장(96)
- CTS-TV 방송 MC(2010~)

1월 새마음 시리즈
모든 것이 은혜로다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정신
갈망(渴望)
내리막길에 숨겨두신 소망

2월 말씀 시리즈
살아있는 말씀 살려내는 말씀
읽어지는 말씀 들려오는 말씀
숨겨놓은 말씀 나타내신 말씀
천국보는 말씀 지옥아는 말씀

3월/예수 시리즈
영원한 현재이신 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십자가 있는 기독교
부활과 창조

4월 성령 시리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과 성도, 그 아름다운 관계

5월 믿음의 가정 시리즈
울어야 삽니다(자녀)
섬겨야 삽니다(부모)
품어야 삽니다(부부)
거룩해야 삽니다(가정)

6월 교회와 선교 시리즈
교회, 바른 교회
선교, 하나님의 선교
아버지, 그 사랑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

7월 쉼과 감사 시리즈
첫 감사 큰 축복(맥추감사)
쉼에 담아주시는 축복
감사와 쉼의 이중창
성찬의 식탁

8월 대위임, 대명령 시리즈
가서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9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을 읽는 감동
하나님을 말하는 기쁨
하나님을 쓰는 소망
하나님을 듣는 축복

10월 The부르심 시리즈
죄인, 나를 부르심(구원)
부르신 나를 부르심(소명)
부르신 나에게 맡기심(사명)
맡은 나에게 원하심(개혁)

11월 은혜와 감사 시리즈
낮은 곳의 은혜, 그 감사
바라봄의 은혜, 그 감사
나눔과 채움의 은혜, 그 감사
기다림의 은혜, 그 감사

12월 하나님의 선물 시리즈
손에 쥐어준 선물, 축복
마음에 담아주신 선물, 은혜
잠잠히 전해주신 선물, 평강
인생 최고의 선물, 예수

성화장로교회
Sanctification Presbyterian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노르만디와 158가 인근, 가디나)
● 이동진 목사님의 설교는 홈페이지와 팟캐스트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www.sunghwachurch.org
교회 : (310)515-1191
사택 : (213)447-3118

담임목사 청빙

1974년 11월 24일 미조리 세인트루이스에 설립 된 본 교회는 성도들이 형제처럼 서로 의지하며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기를 노력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삶을 닮아 가기를 소망하는 그 무엇으로도 포장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성도의 삶에 역사하는 교회,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꿈꾸는 참 목회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1. PCA 교단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2. 신학대학원(M. Div)를 졸업하고, 3년 이상 목회 경력이 (부목사 포함) 있으신 분으로 55세 이하
3.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4.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가능 하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2. 졸업증명서 및 안수 증명서 각 1부
3. 자기소개서(성장배경, 소명, 목회경험, 가족소개) 1부
4. 목회 계획서 1부
5. 최근 6개월내 설교 2편(DVD, 영상 File)

서류제출 마감일 : 2017년 1월 15일(주) 소인 까지

제출처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세인트루이스 한인제일장로교회)
(Attn : 청빙위원회) 3350 Adie Rd. St., Ann, MO 63074
E-mail : stlfirstch@gmail.com

기타사항
1. 제출 서류는 상기 주소로 일반 메일과 이메일로만 접수 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분은 개별 통지 합니다.

세인트루이스 제일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http://www.stlfkpc.or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닮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닮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닮교회 담임목사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위한
제 22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1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찬송 잔치를 엽니다. 모든 분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기도,봉사,마음,시간을 내셔서 따뜻한 사랑을 나눠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장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6년 12월 17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나성열린문교회 ,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솔종합보험,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재), 라이온스클럽, 올림픽 칼국수

후원 남가주한인목사회, 기독일보, FH미션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213)705-0404 /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심민수 칼럼

봉건시대에도 없었던 일이 지금 우리 앞에



심 민 수 교수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옛날 봉건시대에도 없었을 법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솔직히 말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여전히 봉건 사회의 패러다임이 잔재해 왔던 것이다. VIP가 어쩌니저쩌니 해도 그는 봉건 왕조 최후의 왕이었다. 선왕에 대한 그리움이든 비극적 가족사에 대한 동정표이든 국민의 51%가 그를 왕으로 모셨고 파란 지붕 궁궐 내관들의 보필을 받으며 지난 4년간을 군림했다. 이런저런 운명 속에서 VIP는 궁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오랜 침묵의 시대를 거쳐 다시 왕으로 등극하는 숙명을 맞이하였다. 이로써, 스스로 나무랄 데 없는 군주의 마음으로 지난 4년간 이 땅의 군중들을 통치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이 그 손에 있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사태는, 문자 그대로, 과거를 사는 오늘의 자화상이요 우리 사회의 아주 오래된 집단 잠재의식의 현재라 할 것이다.

문제는 과거를 사는,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이런 모습이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뿐만 아니라, 부끄럽지만 우리 교계의 모습이기도 하다. '51%'는 과거 봉건시대의 전근대적 사고에 영향을 받은 수치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계의 비기독교적 사고와도 일맥상통하는 수치이다. 실제로 지금처럼 긴장된 시점에도 교계의 어떤 이들은 '왕권신수설'을 지지하던 절대왕정시대에나 있던 해석적 틀을 전제로 로마서 13장을 설교하는가 하면, 또 다른 목회자들은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면서 오늘날의 사법제도 근간을 아예 부정하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펴고 있다. 사법제도란, 질서의 하나님이 세상에 베푸신 일반 은총의 일환이라고 하는 자명한 사실을 도외시한 채 말이다. 역사의식도, 사회의식도, 기본 상식도 비껴간 일부 교계의 모습을 보노라면 요즘 그 흔해빠진 말, '자괴감'이 떠오른다.

과연 "우리에게 기독교는 존재하는가?" 매우 당돌한 질문이라는 것을 나도 안다. 사실 한국 교계에 기독교적 내면화가 실재하는가 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는 쉽지 않다. 이제는 자랑거리도 되지 못하는 기독교인 700만 시대, 국민의 대표들이 모이는 저기 여의도에도 교인이 40%를 상회한다는 말이 있는가 하면 고위 관료들의 신상카드 종교란에 기독교로 장식된 카드가 넘치고 있다.

앞서 '과거의 시대를 사는 현재'라는 말을 썼다. 이는 과거의 패러다임에 현재가 지배당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를 교계에 적용해 보면 오늘 한국 교계의 현실은 기독교적 패러다임에 앞서 과거 불교적 유교적 샤머니즘적 패러다임이 선이해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미국식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까지 유사종교 형태로 스며들어와 우리의 목회 현장과 교회 마당에 진을 치고 있는 형국이다. 조직문화만 보더라도, 지난 50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철저히 유교적 구조에 의해 지배되어 왔던 터라 군주를 중심으로 하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자연스런 조직 사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로인해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구조를 시연해 가야 할 이 시점까지 그 영향을 주고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평등함을 구현하고 살아야 할 작금에도 타고나면서부터 계층을 넘어 계급화 된 삶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질곡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이다. 문제는 이런 부정적 양상의 세속 흐름이 교계에서도 당연시 되고 있으니 실로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한국의 정치 현상을 두고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국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정치인들도 할 수 없었던 것, 관료들도 몸 사리고 건드리지 못했던 것을, 국민의 힘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고, 이를 등에 업고 정권 말기 빈틈을 타서 일부 언론과 발 빠른 정치꾼들이 철로를 바꿔 타면서 '필연적 우연'이란 엄청난 역사적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젠 국민의 힘으로 주도되고 있는 사회 변혁의 물줄기가 교계에도 새로운 변화에의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사회가 더 이상의 군주의 시대, 기득 권력의 시대를 용납할 수 없는 분위기에 차 있다. 마찬가지로 교계도 전근대의 비기독교적 패러다임에서 비롯된 제왕적 인간 권력의 시대를 뒤로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교회조직, CEO형 스타 목사를 중심으로 한 비성경적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 한, 기독교의 위대한 진정성은 대중으로부터 더욱 백안시될 것이다.

천상의 삼위 하나님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우리의 미래에 이 아름답고 신비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다. 천국,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은 그 천국, 온 우주의 수도(首都)에 계신다. 그 중심 보좌에 앉아계신다.

계시록 4장에는 우주의 중심 수도에 놓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동일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계시며, 성령 하나님도 계신다고 말한다. 놀랍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함께 일하시던 삼위 하나님이 세상이 정리되고 완성되는 마지막에도 함께 계시며 함께 일하신다. 성령님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서있는 일곱 등불로 계시되어 있다. 이 등불이 일곱 영, 즉 성령님이라고 말한다.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존전을 밝히고 있고, 완벽한 영으로서 어둠을 밀어내고 찬란한 영광과 지혜를 드러난다.

이 성령님은 계시록 5장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어린양으로 표현된 예수님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한다(계 5:6).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어린양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계신다. 그리고 그 어린양은 일곱 뿔로 상징된 완벽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며, 일곱 눈으로 상징된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이 일곱 눈이 4장에 등장한 일곱 영 곧 성령이라고 말한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천국은 사랑과 공의의 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천국이다. 천국은 좋으신 성 삼위 하나님이 계시니 천국이다. 천국은 우주의 중심으로서 이곳에서 천사를 지휘하고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본부가 된다. 이 곳에서 삼위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시며, 구원을 베푸신다. 이 아름답고 장엄한 곳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금관을 벗어 하나님께 던지며, 아버지와 아들을 향하여 찬송과 경배를 드린다. 고난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한 사자(Lion), 다윗의 뿌리가 되셔서 영원히 교회를 다스린다.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주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정운길 칼럼(8)

웃음의 뿌리는 우리의 마음



정 운 길 선교사
실버선교회 국제대표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얼굴의 색과 표정과 풍기는 느낌이다. 얼굴은 순수한 우리말로 해석이 필요 없지만 혹자는 얼이 사는 굴(穴) 즉 얼이 사는 집이라고 한다. 얼은 그 사람의 생각과 정신과 사상과 신앙 등등을 내포하고 있다. 얼굴의 얼이 바뀌어야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자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항상 잘 웃는 사람,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기도 하고 좋은 인상을 주므로 대하기가 편하다.

또한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과 직결되어있어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도 어둡고 마음이 밝으면 얼굴도 밝다. 그래서 얼굴이 환하고 밝게 빛나고 웃음이 기득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모든 일을 더 잘 성취할 수 있다. 웃음의 뿌리가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웃는 얼굴은 모르는 사람이라도 반갑고 아는 사람 같으나 화내는 얼굴은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고 싶지 않고 낯설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은 언제나 바뀐다.

마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별 못한다고 한다. '나는 지금부터 웃기로 작정했어!' 라고 결심하고 웃음을 선택하는 순간 웃음은 내 것이 된다. 몸이 아픈 사람이 '나는 벌써 나아지기 시작했어!' 라고 작정하는 순간 몸은 점점 회복될 것이다. 스트레스는 가장 강력한 암의 원인이라고 한다. '우선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고 말겠어!' 라고 결심하는 순간 스트레스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의 몸의 세포도 6개월이면 다 바뀐다고 한다. 그래서 생각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면 상황이 바뀐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생각은 같은 영어로 T N 자를 보면 성공한 사람은 Today, Now를 생각하지만 실패한 사람은 Tomorrow, Next를 생각한다. 나는 3살짜리 애기야! 라고 생각하면서 웃으면 어린이처럼 순진하게 웃을 수 있다. 어린아이는 내일을 걱정 안한다. 편견도 선입견도 빈부귀천도 없다. 그래서 어린이 앞에서는 종이를 찢어도 까르르 웃는다. 필자가 웃음 강의를 하면서 "이제부터 실컷 웃읍시다." 라고 웃음 실습을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군데...." 하면서 웃지를 못한다. 내가 누군데 하고 생각하는 한 웃을 수가 없다.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웃을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 어려운 상황도 쉽게 풀어진다. 그러므로 사고의 틀을 확 바꿔서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예를 들면 짜증이 날 때 짜증 난다가 아니라 '짜증이 나간다.' 힘들어 죽겠다고 생각할 때 '힘이 들어와 할만하다' 죽겠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주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헤쳐 나가면 의외로 쉽게 문제가 해결된다.

생각을 바꾸는 것 중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을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 비록 몸에 병이 들어와도 그 병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행사기간 12.15-12.28.16

Wholesale Restaurant Supply

Central Ave Cash & Carry

GRAND OPENING

200불 이상 구매시 엘리자베스 아덴 뷰티 세트 증정

400불 이상 구매시 타올 디스펜서 증정

T. 213-251-1070

3525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구, 아씨수퍼 지하) [OPEN HOURS] M-F 6:30 am - 6:00 pm / Sun 8:00 am - 4:00 pm

그로서리





CJ 부침/튀김가루 PANCAKE MIX/FRYING MIX 10X2.2LBS 14.99

아씨 순창고추장 ASSI RED PEPPER PASTE 37LBS 37.99

아씨 순창된장 ASSI SOY BEAN PASTE 37LBS 27.99

이금기 간장 SOY SAUCE/LEE KUM KEE 5GAL 16.99

오뚜기 라면사리 OTTOGI RAMYONSARI 48x3.88oz 14.99

왕 진당면 STARCH NOODLE/WANG 6X2.27KG 29.99

판다 굴소스 OYSTER SAUCE/PANDA 6X5LB 32.99

혼다시 HONDASHI/AJINOMOTO 10X2.2LBS 119.99

우나기소스 UNAGI SAUCE/KIKKOMAN 6X5LBS 49.99

아끼꼬 참기름 SEASAME OIL/AKIKO 4X1GAL 29.99

백설 요리당 COOKING SYRUP/BEKSUL 6X2.45KG 27.99

오뚜기 돈까스소스 PORK CUTLE SAUCE 6X2.1KG 34.99

아씨 꽃소금 ASSI SEA SALT 20LBS 5.99

C&H 설탕 C&H SUGAR 50LBS 23.99

보리차 ROASTED BARLEY 44LBS 67.99

아씨 멸치젓국 ASSI FISH SAUCE 3X1.18GAL 17.99

고춧가루/김치용&조미용 ASSI HOT PEPPER POWDER 8X5LBS 84.99

곰표 밀가루 WEAT FLOUR 6x2.5kg 17.99

마요네즈 MAYONNAISE/ANTONIO 4X1GAL 21.99

미즈칸 스시식초 SUSHI VINEGAR/MIZKAN 5.28GAL 34.99

식초 DISTILLED WHITE VINEGAR 4X1GAL 6.99

기꼬만 멤미소스 MEMMI SAUCE/KIKKOMAN 6X64OZ 49.99

레몬쥬스 LEMON JUICE 4X1GAL 24.99

폰즈소스/레몬&라임 PONZU DRESSING&SAUCE 6X1.89L 39.99

기꼬만 테리야끼소스 TERIYAKI SAUCE/KIKKOMAN 4x1GAL 49.99

샐러드드레싱/머스타드&참깨 MUSTARD&SOY SAUCE DRESSING 6X32OZ 39.99

CQ 콩오일 SOYBEAN OIL/CQ 35LBS 18.50

S&B 골든커리 GOLDEN CURRY/4KINDS 12X8.4OZ 24.99

헌트 케찹 HUNT'S KETCHUP 6X7LB 21.99

옥수수캔 WHOLE KERNEL CORN 6X6LBS 21.99

롤리팝 캔디 ASSORTED ROUND LOLLIPOPS 25LBS 34.99

기꼬만 혼쯔유 HONTSUYU/KIKKOMAN 6X1.8L 49.99

알루미늄 호일 ALUMINUM FOILSHEETS 9X10 3/4in 500 6.99

랩/12in ALL PURPOSE CLING FILM 12in x 2000ft 10.99

컨테이너/세제



국물 투고용기 PLASTIC QUART CONTAINERS 240 sets 39.99

12oz 컨테이너 12oz CONTAINERS 500 19.99

5oz 컨테이너 5oz CONTAINERS 1000 25.99

컨테이너 CONTAINERS 200 SETS 64.99

샌드위치 컨테이너 CONTAINERS 4X125CT 21.99

6oz 음료용 컵 6OZ FORM CUPS 1000PCS 14.99

폼접시 9in/1&3칸 FOAM PLASTIC DINNERWARE 500 14.99

점보블랙빨대 JUMBO BLACK STRAW 10BOX 250PCS/BOX 9.99

대나무 젓가락 BAMBOO CHOPSTICKS 2000EA 21.99

플라스틱 스푼/포크 FLASTIC SPOONS/FORKS 10PK 100pcs/PK 14.99

디너냅킨/1-PLY 1-PLY DINNER NAPKIN 34.99

멀티폴드 타올 MULTIFOLD TOWL 4000CT 15.99

음료용냅킨/1PLY BEVERAGE NAPKIN 8X500CT 9.99

페이퍼롤타올 PAPER ROLL TOWEL 6ROLLS 19.99

다목적 페이퍼타올 ALL PURPOSE PAPERTOWEL 2 PLY 30 ROLLS 21.99

화장실용 휴지 2-PLY BATHROOM TISSUE 96 ROLLS 39.99

핸드솝 HANDSOAP/CHEMCRAFT 4X1GAL 13.99

수퍼폴리 장갑S/M/L SUPER PLOY GLOVES 10X100 12.99

철수세미 STAINLESS STEEL SCRUBBER 6BOX 12PCS/BOX 20.99

11X14 롤백 PLASTIC PRODUCE BAGS 4 ROLLS 14.99

땡큐백 THANK YOU BAGS 12X7X22in 9.99

쓰레기봉투 33G BLACK TRASH BAG 33 GAL 100CT 17.99

쓰레기봉투 55G BLACK TRASH BAG 55 GAL 100CT 19.99

물비누 그린&레몬 DISH WASH/LEMON&GREEN 4X1GAL 13.99

오븐&그릴 클리너 OVEN & GRILL CLEANER 4X1GAL 16.50

블리치 BLEACH/PURE BRIGHT 4X1GAL 9.99

그릴 크리너 GRILL-BRICK/GRILL CLEANER 4X1GAL 16.50

변기커버 TOILET SEAT COVER 250PC 20PK 24.99

윈덱스 WINDEX 4X3.78L 29.99

포스 롤 DATA TERMINAL ROLLS 50ROLLS 44.99

게스트체크 GUEST GHECKS 3.50X6.75in 50BOOKS 29.99

냉장/냉동

고랭지 포기김치 KIMCHI/WHOLE 강원도 동광/평창 10KG 35.00

단무지 PICKLED RADISH 15X2.2LB 27.99

염장미역 SALTED SEAWEED/ASSI 33LB 31.99

아씨 천사채 SEAWEED NOODLES 10X2.2LB 24.99

하나 사누끼우동 FROZEN SANUKI UDON 8X2.75LB 16.99

칼국수&짜장국수 FRESH NOODLES 10X2.2LB 29.99

맛사랑 사각어묵 FISH CAKE 20LB 29.99

신당동 떡볶이떡 RICE CAKE/ASSI 20X2LB 41.99

아씨 해물모듬 MIXED SEAFOOD/ASSI 15X2LB 117.99

꽁치 MACKEREL PIKE 10kg 19.99

깐가자미 PEELED SOLE 10LB 25.99

새우젓 SALTED SHRIMP 66LB 79.99

몸에 좋은 낙지 FROZEN SMALL OCTOPUS/ASSI 20X1.5LB 89.99

정육

돼지 불고기 PORK BUTTS SLICED 2.19LB

흑돼지 삼겹살 PORK BELLY SKLS JP-SP 2.69LB

소 불고기 BEEF CLOD XT SLICED/2.5mm 2.99LB

소곱창 BEEF SMALL INTESTINES 1.49LB

막창/대창 BEEF ABOMASUM SWIFT 2.99LB

도가니 BEEF KNEE BONE 0.99LB

사골 BEEF LEG BONE 0.99LB

닭 다리살 CHICKEN LEG MEAT 0.99LB

일부 세일품목에 한하여 수량제한이 있으며 조기품절 될 수 있습니다. 광고제작상의 오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및 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자녀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대표 **주해홍** 목사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유버전 성경앱. ⓒ페이스북

유버전 성경앱 다운로드수 2억 5천 건 돌파

앱 제작자…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한 일 하셨다

기독교인들 사이에 유명한 유버전 성경앱 다운로드수가 2억 5천건을 돌파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2008년 만들어진 유버전 성경앱은 12일 이 같은 기록을 달성했다.

유버전 앱을 만든 라이프교회 바비 그렌뉴왈드(Bobby Gruenewald) 목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전 세계에서 매일 몇 명의 사람들이 앱을 볼 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바비 목사는 "성경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거나 상상하지 못한 많은 일을 하셨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단체들과 기관들이 선교를 위해 한데 모이게 하셨다"면서 "번역가, 출판사, 성경 단체, 교회, 작가, 수많은 자원 봉사자들이 사람들과 성경을 연결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을 갖고 하나로 연합했다"고 말했다.

2007년도 라이프교회 웹사이트에서 첫 선을 보인 유버전 성경앱은 1,000개 이상의 언어로 1,500가지 버전의 성경을 제공한다. 5년 동안 유버전 성경앱 다운로드 횟수는 1억 건이었고, 작년 12월 2억 건을 돌파했다.

작년 인터뷰에서 그렌뉴왈드 목사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를 전혀 상상하지 모했다. 성경앱을 설치한 휴대폰이 2억대라고 이야기할 줄 전혀 몰랐다"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으며, 우리의 믿음 또한 커져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십계명 기념비.

美 공무원들, 법원 판결 불구 십계명 기념비 철거 반대

미국 공무원들이 지방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청 앞 십계명 기념비를 철거하지 않기로 했다고 英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뉴멕시코주 블룸필드시의회 의원들은 "이 지역 7,000명의 주민들은 시청에 기념비를 두는 것에 찬성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사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지난달 기념비 주변에서 철야기도를 드리기도 했다고 한다.

최근 열린 시의회 회의에서 파밍톤시의 앤 프로스트는 "십계명 기념비를 수호하는 것은 하나님을 수호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크리스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설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설 때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쟁적인 이 기념비는 2011년 세워졌다. 블룸필드 시청에 시민들이 역사적인 내용의 전시를 해도 좋다는 결정이 내려진 후,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십계명 기념비가 설치됐다. 기념비 설치에 들어간 비용은 개인이 지불했다.

그러나 위칸스 제인 펠릭스, 버포드 쿤 등은 기념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뉴멕시코주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 알렉산드라 스미스 변호사는 지역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비기독교인인 의뢰인들이 이 기념비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념비 때문에 공동체에서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지방법원의 제임스 파커 판사는 "이 기념비가 미국의 헌법을 위반한다"면서 위칸스와 ACLU에 호의적인 판결을 내렸다. 시는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법원 역시 지방법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강혜진 기자

불교, 버마 국교로 부상…기독교 차별

버마의 기독교가 제도적으로 차별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美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는 "불교가 사실상 국교로 부상하고 있다"며 버마의 종교 자유의 결핍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숨겨진 역경: 버마의 소수 기독교인'(Hidden Plight : Christian Minorities in Burm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보고서는 "버마의 기독교인들이 만연하고 장기간 지속된 박해와 차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세대 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버마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불교가 사실상 국교로서 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에 따른 정책들이 기독교인 뿐 아니라 종교적·윤리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기독교인들에 대한 제도적인 차별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며, 기독교인들과 다른 소수 종교인들 역시 정부 분야의 승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버마의 기독교 공동체는 종교 자유의 지독한 위반 때문에 깊은 고통과 아픔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면서 "법과 정책으로 모든 이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개혁을 해야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종교간 대화를 밑에서 부터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강혜진 기자



지진으로 한 사원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모습. ⓒ기아대책

'힌두교' 국가 네팔, 기독교 인구 증가

기독교 개종 인구 약 1백만 명…교회 수는 약 8천 개

[1면으로부터 계속]네팔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들이 모두 수드라 계급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다.

M.J. 샤와 같이 귀족 가문 출신으로 죄악된 삶을 살다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도 있다. 2005년 그리스도를 영접한 샤는 "과거에는 도박·알콜·마약·폭력 등을 일삼으며 문제아처럼 살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독교인들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모든 기독교인은 한 가족'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어 매우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FNCN의 찬드라 맨 사무차장은 "작년 4월 네팔 지진 이후 기독교가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했다.

강혜진 기자



신천지 설립자 이만희 ⓒ영국 텔레그래프 보도화면 캡쳐.

英교회들, '신천지' 경계령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라크리스토'명으로 활동

최근 英텔레그래프는 "'한국의 이단'이 영국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다.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한국의 이단은 다름 아닌 신천지였다.

보도에 의하면, 영국성공회는 최근 런던의 약 500개 지교회에 파라크리스토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주의하라는 공식 경고문을 보냈다.

파라크리스토는 '인류의 권익을 위해 운영되는 종교단체'라는 명목으로 올해 여름 영국 자선위원회에 정식 등록하고 런던 금융가인 캐너리 워프에 본부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런던 도클랜즈 인근 보톡스 클리닉이나 개인 헬스장에서 성경공부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텔레그래프는 그러나 파리크리스토가 실제로는 한국에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주장하는 이만희가 세운 이단 신천지와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 친구와 가족들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자신의 실제적인 삶을 적극적으로 속인다고 말했다. 심지어 일부는 직장과 대학교 학업까지 포기하고, 한국과 스위스로 여행을 떠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런던의 대형 복음주의 교회들에도 침투해 현지 교인들을 특별한 성경공부에 초대한다.

신천지에서 풀타임으로 헌신했던 한 영국인 남성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승진을 위해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다고 말한 후 외박을 하면서 보냈다고.

영국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이자 알파코스로 유명한 브롬프턴 홀리트리니티 교회 역시 파라크리스토를 경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교인들에게 전달했다.

홀리트리니티 교회의 니키 검벨 목사는 지난 달 "파라크리스토는 이단이며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거짓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이단적인 집단"이라고 경고했다.

세인트매리 런던교회의 조 피터 목사도 교회 홈페이지에 "파라크리스토라는 사이비 종교를 조심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피터 목사는 "이들은 친밀함을 갖고 접근한 후 캐너리 워프에서 성경공부를 하자고 초대할 것"이라며 "성경공부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속임수와 통제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파라크리스토는 변호사를 통해 "신천지가 가르치는 것과 같은 내용을 파라크리스토에서 가르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파라크리스토는 신천지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신천지 신도에 의해 세워졌다. 성경공부는 자유"라고 주장했다.

성도들이 직장과 학업을 그만둔다는 것에 대해선 "교인들의 선택은 개인적인 것으로, 사생활과 관련된 지시를 내리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사이비 종교집단이 아니냐', '신도들에게 거짓말을 지시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파라크리스토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클라이언트들은 개인적 선택에 의해 성경공부를 하고, 본인의 삶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IS, 시리아 고대 도시 '팔미라' 재탈환

시리아 정부군이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로부터 탈환한 고대 유적도시 팔미라를 9개월 만에 다시 빼앗겼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팔미라가 있는 홈스 주의 탈랄 바라지 주지사가 IS의 공세에 수적으로 열세였던 시리아 정부군이 퇴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보다 앞서 영국에 소재한 시리아인권관측소는 "러시아 공군의 지속적 공습에도 IS가 팔미라 전체를 재탈환했다"고 전했다.

팔미라는 2천년 전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 유적을 간직한 도시로 시리아 동부 대부분의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어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은 IS가 지난해 5월 장악했던 팔미라를 10개월 만인 지난 3월 탈환했었다.

바라지 주지사는 "정부군이 퇴각 직전에 주민의 80% 가량을 대피시켰다"면서 "남겨진 주민을 IS가 인간방패로 삼을 가능성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IS는 팔미라를 뺏기기 전까지 우상 숭배를 금한다는 이유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을 잇따라 파괴하고 고고학자까지 살해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강혜진 기자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8:00
2부 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Awana 오후 8:00(금)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EM/YOUTH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새벽 예마 기도회 오전 5:30(월-금)
금요예마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363-5887
LA예배처소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213) 232-3163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United Christian Seminary UCS 대학교 및 대학원

SEVIS I-20 자체 발행 | 수시입학 수시졸업가능



최아브라함 총장

목사안수제도

목사안수는 UCS 대학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미국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실시하는
교단법에 의거 목사고시를 거쳐
미국예수교장로회 교단으로 부터
목사안수를 받으실수있습니다.
여목 제도 있습니다.

상담문의 : (213)388-5992, 한국어(213)598-3146, Fax(213)388-5973
E-mail상담 : ucsuniversity@gmail.com, ucsuniversity@yahoo.com 주소 : 3130 Wilshire Blvd, #210., LA, CA90010

기드온 동족선교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 위 책에 소개된 그분들의 희생과 순교는 복음통일이 주님의 계획임을 보게할 것입니다.



박상원 담임목사

16825 48th Ave. W STE 345 Lynnwood, WA 98037
T. (425)775-7477

동부사랑의교회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2:00
Holy Wave 오전 10:15
English Sevice 대학청년부 오후 2:00
새벽 예배 월~금 새벽 5:20
토요 연합예배 토요일 새벽 6:30



박승규 담임목사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 590-3722

ECO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sunhanchurch.com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강지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은혜와 평강의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남산당한의원



김용훈 원장

한방치료 하면 남산당 한의원
장생시대 건강과 행복을
드리는 삼채엽록소!

문의: 213-389-9333

1707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장수한방병원

척추 전문 장수 한방병원
추나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뱅원

월~금 오전9시~6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2시
T213-381-7575, 323-737-3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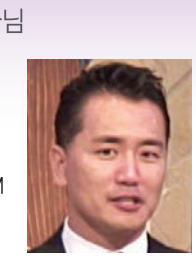
장재수 원장

1144 S. Westren Ave., #104 LA, CA90006

시미밸리한인교회

예배속에서, 삶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주일 영어부 예배 10:00 PM
주일 예배 11:15 AM
유년주일학교 11 AM
금요찬양예배 8:00 PM
새벽 기도회 MON~SAT 월~금 5:45 AM



반채근 담임목사

2975 Wilshire Blvd. #670, LA, CA 9001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500 Shatto Pl. #410, LA, CA 90020
T.(213)321-4433

엠마오장로교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최준우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8:30AM 2부 11:00AM
어린이예배 주일 11:00 AM
영어예배 주일 11:00 AM
한글학교 주일 1:00 PM
새벽기도회 화-금 5:30AM 토 6:00AM
수요찬양예배 수 7:30 PM

18435 Valley Blvd., La Puente, CA, 91744

고백하는교회

16200 Chatsworth St., Granada Hills, 91344



하모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7시 30분
어린이예배, 영어학생부예배 주일 오전 11시

16200 Chatsworth St., Granada Hills, 91344
T.(818) 363-6007

남가주 새언약교회 New Covenant Community Church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강양규 담임목사

주일감사예배 : 주일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 저녁 8:00
금요성령집회 : 저녁 8:00
새 벽 기 도 회 : 오전5:30(월~금)
교회학교(Child Youth) : 매주 주일 오전 11:00
새언약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10:30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교회를 위한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교회를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남 침례 6대신학교, 100% 한국어, I-20 발급,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혜택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issouri 64118

e-mail:ks@mbts.edu
T.(816)414.3754

하나로커뮤니티교회



이승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벤츄라교역자협의회

회장 : 승광철 목사
총무 : 이정구 목사

회원교회

- 벤츄라 감리교회(김민영목사)
- 벤츄라 열린문장로교회(김경욱 목사)
- 벤츄라카운티 장로교회(이정구 목사)
- 새생명 교회(승광철 목사)
- 씨미밸리 한인교회(반채근 목사)
- 옥스나드 한인교회(김진구 목사)
- 옥스나드 연합감리교회(남재헌 목사)
- 주님의 교회(오정택 목사)
-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조인 목사)
- 카마리오 커뮤니티한인교회(권혁래 목사)
- 카라리오 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목사)



미주성결교회 유니온교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엡2:22)
너희도 성령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김신일 담임목사
Rev. Sinyil Kim

주일예배

주일 1부 예배	오전8:00
주일 2부 예배(영어권/Eng)	오전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11:00
유치부예배	오전11:00
초등부예배	오전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11:00
KM청년모임방	오후1:00

주중예배

주중새벽기도	월~금 오전5:30
토요새벽기도	토 오전6:3
금요기도회	금 오후8:00
자녀들을 위한 금요모임	금 오후8:00
수요중보모임	수 오후8: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축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얼바인에 위치한 베델한인교회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 1부 예배: 오전 7:15 /본당
주일 2부 예배: 오전 9:00 /본당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본당
주일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본당
수요 예배: 저녁 7:30 /본당
토요 헵시바 새벽 기도회: 새벽 6:00 / 본당
새벽 기도회: 화-금 새벽 5:30 / 본당

담임:김한요 목사
Rev. Bryan H. Kim, Sr. Pastor



베델한인교회 BETHEL KOREAN CHURCH
담임목사 김한요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Fax (949)854-4018 • 수양관 (949)943-9697
www.bkc.org • email: bethel@bkc.org

인랜드지역한인교역자협의회

- 회 장 : 강문수 목사
- 회계,총무 : 오경환 목사

회원교회

- 갓스윌 연합교회(이희철 목사)
- 남가주휄로쉽교회(박혜성 목사)
- 두란노교회(손상헌 목사)
- 백두암선교회(박충길 목사)
- 인랜드교회(박신철 목사)
- 에덴선교교회(윤석길 목사)
- 언약교회(오경환 목사)
- 인랜드온누리교회(박성호 목사)

세미한교회는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사랑과 믿음의 예배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감동과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세미한교회

1) 세계인과 미국인과 한국인과 더불어 예배드리는 교회
2)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려 드리는 교회
3) 2세를 100% 세계인, 100% 미국인, 100% 한국인으로 키우는 교회



최병락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금요일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주소 및 전화

1615 W. Belt Line Rd., Carrollton, TX 75006
Tell. (972)446–0178

semihan.org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Christmas 성탄을 축하합니다



한인 소망 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2:45
수요에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분(월~금)



윤 목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CA 90274
T. (310)715–9902

UBM교 회

3세대가 함께 성경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김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축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배/안/내

주일예배		
1부 예배	본 당	주일 오전 9시 30분
2부 예배	본 당	주일 오전 11시
수요 찬양과 경배	본 당	수요일 오후 8시
주일학교 예배	교육관	
영,유치부	소예배실(교육관)	주일 오전 11시
유년부	소예배실(교육관)	주일 오전 11시
초등부	소예배실(교육관)	주일 오전 11시
Youth Team	소예배실	주일 오전 11시
청년. 대학부	선교 교육관	금요일, 토요일 오후 6시
새벽 기도회	본당	매일 오전 5시 45분
토요 새벽 예배	본당	토요일 오전 6시



김경식 담임목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세인트루이스한인 **제일장로교회**

3350 Adie Rd. St. Ann, MO 63074 교회 T. (314) 395–3719 T.(314)495–4267 E-mail:stlchurch@sbcglobal.net, amensalom@hotmail.com

1등 아메리카 대륙 푸른투어LA cst# 212654040
PRT Tour & Consulting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뉴저지 본사	플러싱 지사	로스엔젤레스 지사	토론토 지사	서울 지사
(201)313-0899	(718)928-3333	(213)739-2222	(647)686-6000	(02)739-0890
725 Grand Ave #305 Ridgefield, NJ 07657	154-08 Northern Blvd #2B Flushing, NY 11354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5467 Yonge Street, Suite 2B Toronto, ON. M2N 5S1	Doosan We've 58 #1238 Jongno-gu, Seoul

여행설계사 데비드강의 여행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맘모스, 리노 멀리까지 갈 필요없이 하루에~
마운틴 하이 스키 리조트 당일 스키 여행
① 리프트권+교통 $99
② 리프트권only $74 → $45
▶12/23,24,25,26,30 1/1,2,3
- 마운틴 하이 스키장 내에서 장비 렌탈, 강습 가능
- 오전 출발~종일 내내 스키를 즐기세요
"푸른투어의 특별한 겨울선물"
푸른투어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께 스파팔래스 할인쿠폰을 드립니다.

X-마스 연말 연시 특선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특선 1 레인보우 브릿지 2박 3일 $345 ▶12월 24일, 31일
①서부 최고의 비경 '레인보우 브릿지 유람선' 포함($150 상당)

특선 2 세도나 / 미티어 크레이터 2박 3일 $249 ▶12월 23일, 31일
① 세계 최대 운석분화구, 미티어 크레이터
② '스페셜 세도나'를 가족과 연인과 함께 하세요~

특선 3 벨라지오 숙박 2박 3일 $345 ▶12월 23일
① 라스베가스 최고 호텔 '벨라지오 숙박'
② 가족과 연인과 여유있게 크리스마스를 즐기세요

12월 23/31일 (금/토)
세도나 / 미티어 크레이터 2박 3일 $249
엔텔로프 / 모뉴멘트 밸리 3박 4일 $429

12월 24/31일 (토)
레인보우 브릿지 2박 3일 $345
라스베가스 자유여행 2박 3일 $345
그랜드 캐년 3박 4일 $389
스카이 워크 / 그랜드 캐년 3박 4일 $389
나파벨리 / 레드우드 2박3일 $299

12월 24/25/31일 (토/일/토)
자슈아 / 팜스프링 온천 1박 2일 $149
데스밸리 / 라스베가스 1박 2일 $179

12월 27일 / 1월 3일 (화)
미서부 3박 4일(자이언/브라이스/앤텔로프/그랜드 캐년) $389

재향군인회 소속 회원님께 특별 할인 해 드립니다.

푸른투어의 자존심~ 명품 IVY 리그
5박 6일 브라운/예일/하버드/MIT/프린스턴 유펜/존스홉킨스/콜롬비아 ▶매주 화/토 $1,090
7박 8일 브라운/예일/하버드/MIT/프린스턴 유펜/콜롬비아(나이아가라) ▶매주 수 $1,160
① 재학생 투어 총 3회 〈예일/하버드/유펜〉
② IVY 전문 가이드와 함께 캠퍼스 투어 ③ 3명 이상 출발

푸른투어의 자랑 그랜드 써클
6박 7일 $829 "9대 캐년 완전정복"
▶1/27 2/10,24 3/10,24 4/14,21 5/5,12,19
미서부 완전정복
▶라스베가스/그랜드 캐년/호스슈밴드/페이지/앤탈롭 캐년/모뉴멘트 밸리/구스넥/그린리버/아치스 캐년/데드호스포인트 캐년 랜드/고블린/캐피탈리프/브라이스 캐년/자이언 캐년

북해도 온천 +동경까지 7일 $2,999 ▶2/15
1 노팁! 노옵션! 항공포함! 인솔자 동행
2 삿포로 특식 3대게 무한리필 특선!

오로라 알래스카 기차여행 5일 $1,300 +항공 ▶목요일
1 설국에서 즐기는 노천온천
2 '설국열차'타고 알래스카 횡단

칸쿤 치첸이사 4일 $1,199 (항공포함)
옴니 칸쿤 - 오션뷰 보장!
▶1차 특별출발 : 1월 16일
▶2차 특별출발 : 2월 13일
올인클루시브(무제한 식사/음료/주류 모두포함)

코스타리카 5일
▶4명 이상 출발 가능 / 그외 날짜 문의
$1,499 → $1,399 ▶1/23 [특별출발] (항공포함)
코스타리카 3박 4일 ▶12/20 $920 +항공
코스타리카 4박 5일 ▶12/21,22,23 1/20 $1,030 +항공
코스타리카 5박 6일 ▶1/16,30 2/8 $1,150 +항공

바하마관광성과 함께하는 바하마투어
관광성 장관배 골프 투어
3박 4일 $1,300 ▶관광 ▶2월3일 (항공포함)
$1,600 ▶골프 그린피 포함
허니문 투어 ▶수시출발
7박 8일 $2,400 부터
항공/숙박/식사/술/교통/부대시설 포함

노팁! 노옵션! 캐리비안패키지 3박4일
캐리비안의 흑진주 자마이카 $1,049
신혼여행 세계수도 바하마 $1,049
캐리비안 최고의 골프 천국 도미니칸 Rep $999
멕시코 최고의 휴양지 코즈멜 $899
항공/숙박/식사/술/교통/부대시설/ 5성급 리조트

태평양의절경 로스 카보스 3박4일
에메랄드 바다, 환상의 휴식
3박 4일 $679
태평양 연안의 절경 골프 코스
항공/숙박/식사/술/교통/부대시설/5성급 리조트

아시아 특선
아시아 ▶수시출발 / 맞춤상담
-홍콩 4일 | -대만 4일 | -푸켓 5일 | -발리 5일 | -세부 5일
-방콕/파타야 5일 | -싱가폴 5일 | -코타키나발루 5일 | -동남아 일주(홍콩/방콕/싱가폴) 9일 | -하롱베이/양코르왓 6일
-양코르왓 5일 | -싱가폴/바탐 5일 | -하롱베이/하노이 5일

중국 특선
중국 ▶수시출발 / 맞춤상담
-북경 4일 | -장가계 5일 | -계림 5일 | -서안 4일 | -항주/서당/상해 4일 | -중국일주 11일
-북경/계림/장가계/서안 8일 | -계림/장가계/서안 6일 | -계림/장가계/서안/항주/상해 9일

푸른투어는 미국 서부, 동부, 캐나다 모든 여행을 직접 진행합니다.

추가요금이 없습니다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호텔숙박
3일 그랜드캐년/라스베가스 ▶매주 화 출발 $299
4일 실속4대캐년 ▶매주 화 출발 $389
6일 실속 미서부 일주 ▶매주 화/토 출발 $599
7일 4대캐년+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매주 화/토 출발 $689

자이언/브라이스/앤텔로프/그랜드 캐년
미서부 4대 캐년
3박 4일 $389 특급 벨라지오 숙박 ▶매주 화 출발
▶자이언/브라이스/앤텔로프/그랜드 캐년
바스토우-라스베가스-자이언-브라이스-라플린-캘리코

미서부
매주 화요일 특급 벨라지오 호텔 숙박
3대 캐년 4일 $389
3대 캐년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매주 월 그랜드 캐년/브라이스 캐년/자이언 캐년
4대 캐년 (벨라지오) 4일 $389
4대 캐년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4일 매주 화 -7일 매주 화/토 3대 캐년+앤텔로프 캐년
그랜드 캐년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3일 $299
▶매주 화/토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4일 $389
▶매주 월/목/금/토
미서부 실속 여행 (벨라지오) 6일 $599
▶매주 화/토

고객감사 한정 특가! $149
세도나 3일 ▶12/19
[세도나 트롤리/슬라이드 락 선택가능]
LA 일일투어 ▶월/수/금 $59
(50인승 전용차량, 한인가이드, 중식불포함)
올베라거리/다운타운/다저스스타디움/그리피스천문대/헐리웃거리/로데오거리(차창관광)/산타모니카해변 파머스 마켓/그로브 몰 등

캐나다
-샤토프롱트낙 숙박
퀘벡 2박3일 ▶매주 토 $429 +항공
▶세계문화유산 리도홀/성요셉 성당/노틀담 드캅 성당/몽모렌시 폭포

미동부
$100 상당의 3대 옵션 포함
1) 자유의 여신상
2)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입장료
3) 안개속의 숙녀호 탑승

실속 미동부 5일 (뉴욕/워싱턴 DC/나이아가라) ▶매주 수/토 $79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 6일 (미동부 5일+토론토/천섬) ▶매주 수/토 $899 (항공포함)
미동부/보스턴 7일 (미동부 5일+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04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보스턴 8일 (미동부/천섬 6일+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캐나다 8일 (미동부/천섬 6일+몬트리올, 레이크조지, 퀘벡)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보스턴/캐나다 10일 (미동부/캐나다 8일+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299 (항공포함)

1등 아메리카 대륙 푸른투어LA cst# 212654040
PRT Tour & Consulting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무료픽업 가능 : 가든그로브/토렌스/세리토스/가디나/다이아몬드 바
광고상의 모든 컨디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상품은 비수기 기준으로 성수기시요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럼이 열리고 있다.

청소년 동성애 성향은 유동적, 억제하면 약화돼

2016년 국회 바른정책 포럼 …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주제로 개최

2016년 국회 바른정책 포럼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윤상현 의원(새누리당, 인천 남구을)과 바른교육교수연합(대표 이용희 교수), 바른교육학부모연합(대표 에스더김)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후원했다.

포럼 1부 개회식에서는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 사회로 이용희 교수가 포럼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나라가 이대로 가면 큰일나겠다 싶어서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며 "동성애와 동성결혼 법제화가 세계적 추세인 것 같지만, 이를 허용한 곳은 20여개 국에 불과하고 법적으로 반대하는 곳은 80여개 국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동성애 퀴어축제가 열리는 내년 6월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전 세계 200여개 국 사람들을 초청해 가정의 소중함, 성윤리의 중요성, 생명의 위대함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2부에서는 김기수 변호사(헌법수호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 사회로 포럼이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최현림 교수(경희대 의대)가 '동성애에 대한 의학적 고찰: 동성애 선천적인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독재: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 성적지향의 문제점'을 발표했다. 이후에는 김영길 소장(바른군인권연구소)과 염안섭 원장(수동연세병원) 등이 토론을 펼쳤다.

최현림 교수는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성되고 동성애자들은 형성된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뿐이므로, 동성애는 정상이며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동성애가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으며, 동성애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대웅 기자



GMS 전문인 선교 개발대회가 열린 가운데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에 대한 강조와 선교의 새 패러다임이 제시됐다.

초대교회 흩어져 복음 전한 이들은 '평신도'

GMS TMN 2016 전문인 선교 개발대회…선교의 새 패러다임 제시

한국 최대 선교단체인 GMS가 지난 10일 대한교회에서 'TMN(Tentmaker Mission Network) 2016 전문인 선교 개발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자비량 선교와 관련된 한국교회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제시해 큰 관심을 모았다.

상영규 선교사(GMS필리핀)는 "교회 사 속에 나타난 비즈니스 자비량 선교와 자립선교 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먼저 사도행전 속 놀라운 선교 사역과 부흥이 최초의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들을 통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회와 목사는 거룩하고 세상과 직업은 세속적이라는 오해를 풀어야 비즈니스 선교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밝히고, "비즈니스 혹은 전문직업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수행하는 것, 즉 비즈니스 전문직이 곧 선교(Business is mission)"라 이야기 했다.

이어 상 선교사는 "목사 선교사의 비중이 유난히도 높게 차지하고 있는(94%) 현 GMS 선교사 파송 구조(교단 평균 91%)는 전문인 선교사 후보생 군단의 적극적 파송으로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이라며 "목사 선교사라 할지라도 목회 사역만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성과 속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고를 버리고,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해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현지인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선교사역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총체성 가운데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선교 방향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을 '총체적 선교'라 부른다고 밝혔다.

상 선교사는 예일대 역사학자 케넷 라토렛의 말을 인용해 전하기도 했다.

케넷 라토렛의 말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의 재정후원에 의해 해외선교단체가 형성된 것은 최근의 현상으로, 기독교 확장의 주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들은 그 임무에 전문적으로 임했던 이들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순수한 자비량 선교 방법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신앙을 전했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 같다고 한다.

상 선교사도 초대교회 시대 예루살렘에서 발생했던 핍박으로 인해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이들은 평신도였다고 밝히고,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평신도인 의사, 간호사, 교사, 영농기술자, 교육행정가 등 전문인들이 선교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전통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한국교회 초기 서양 전문인 선교사들이 의료 교육 농업분야에서 섬긴 결과 한국은 점차 기독교와 선교사들에게 문호를 열기 시작했고, 의료선교사 알렌의 경우 그는 개신교 최초의 거주 전문인 자비량 선교사였다고 이야기 했다.

또 한글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서상륜은 보부상이었고, 서양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 한국 전문인에 의해 시작된 최초의 한국 개신교회는 소래교회였다고 한다.

상 선교사는 "서상륜의 봇짐에는 항상 성경과 금계랍이라는 약재, 그리고 씨감자가 있었는데,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전도대상자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체적, 경제적 필요도 심각하게 고려해 전인적 사역을 했다"면서 "그를 한국 최초의 전문인 비즈니스 자비량 선교사로 자리매김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다.

홍은혜 기자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11:30
EM주일 오전11:30
금요예배 오후8시
교육부 오전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2:20
4부예배 오후 2:00(젊은이예배)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본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홍성준 담임목사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10: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온라인 쇼핑 비지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의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토 예약 필수)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CD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환영배너 스텐드포함 $65 (물티슈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탑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 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섬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junim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실내외,차량) 제작, 판촉물인쇄 전문
junimmedia.com 개척교회 및 신학교, 선교단체를 위한 특별할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1.전도용품 세일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 전도물티슈 ✦

✦ 볼펜 ✦

전도용물티슈 1,000set($380) 고급항균 물티슈! 1set에 10매가 들어 있습니다.
✦ 전도엽서 ✦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이 구비되어 있으니 웹사이트를 방문하시어 더욱 다양한 샘플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 전도용 설교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설교시디앨범
전도대상자 또는 방문자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

5. 환영배너 (스텐드 포함 $65) Free Shipping!!!


실버시티보험 시티보험 자회사 CA Lic. #0156071
메디케어 올해 65세 되십니까?
메디케어 신규보험가입&변경기간 10월15일~12월7일
■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Part C) ■ 메디케어/메디칼 (변경기간 상관없음)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 메디커넥트 등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213-321-0302 Connie Kim(김 경미)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왕만두 (10개 $10)
팥찐빵
부추교자 (50개 $20)
김치교자
무료배달 ($40이상 주문시)
손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인하손만두 626.731.78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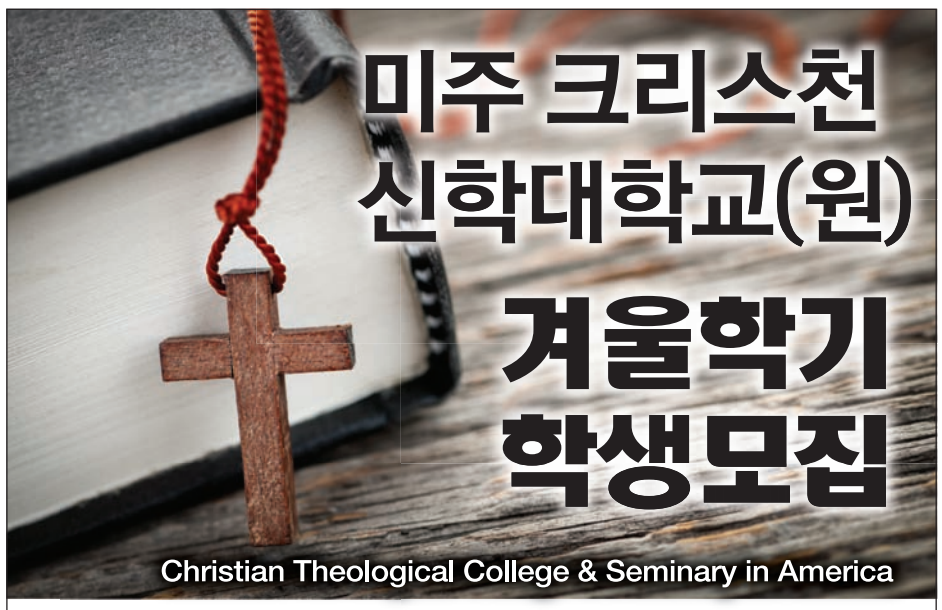
기독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3달분 $60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신학대학교
• B.A. 신학과
개강 12월22일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M.A. 목회학 석사과정
• Th.M. 신학 석사과정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Th.D. 신학 박사과정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273-6031 | (213)235-6889



미래교회포럼(대표 박은조 목사)이 12월 5~6일 이틀간 서울 연동교회(담임 이성희 목사)에서 '이신칭의, 이 시대의 면죄부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특히 최근 '구원론 논쟁'을 불러온 김세윤 교수(풀러신학교)가 강사로 나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김 교수는 이틀 동안 '사도 바울의 복음: 바울의 칭의의 복음과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목으로 강연하며, 바울이 강조한 '칭의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개혁신학이 전통적으로 이해해 온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은혜)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과는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등을 분석했다. 김 교수와 함께 박영돈 교수(고려신학대학원)도 강사로 나서, 주로 칼빈이 이해한 '칭의론'의 의미를 소개하고, 그것이 김세윤 교수의 칭의론과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분석했다. 아래는 김 교수와 박 교수의 주제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구원에 대한 최후 '탈락' 가능성 있다고 보는가?



김 세 윤 교수
플러신학교

김세윤 교수가 해석한 '바울의 칭의론'이 개혁신학의 그것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칭의를 '단회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완성되는, '점진적인' 것으로 주장한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 개혁신학은,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로마가톨릭의 이른바 '행위 구원'에 맞서,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오직 은혜'만으로 가능한 것이며, 인간은 이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 비로소 '의인'이 된다고 가르쳐 왔다.

다시 말해 '칭의'는 마치 법정에서 재판관이 "죄가 없다"고 선언하면 그 즉시 사면되듯,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의인이 된 인간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에 이른다는 것이 한국교회에서 공히 통용돼 왔던 '구원론'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세윤 교수는 이와 같은 '칭의-성화-영화'라는 소위 '구원의 도식(순서)'을 거부한다. 특히 구원과 성화를 단계적으로 구분 짓는 것이, 바울이 말한 칭의의 '진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칭의는 그것대로 끝나고 성화가 그 다음 이어진다는 것은, 자칫 성도에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고, 이것이 오늘날 실제로 많은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면서 '윤리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와 같은 칭의는, 다른 말로 '첫 열매'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근본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종말론적인 구조를 가지는데, 칭의도 이와 같아서 '법정적 의미'의 칭의,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면 선포'로 '이미' 의인이 된 것은 칭의의 선취 혹은 첫 열매일 뿐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그러나 온전한 칭의를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음을 암시한다. 칭의라는 개념이 '법정적 의미' 뿐만 아니라 '관계적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언으로 죄가 사면된 인간, 곧 첫 열매가 된 우리는 그런 다음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김 교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갔다는 의미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관계로 들어갔다는 말"이라며 "그러므로 칭의는 주권의 전이다. 사단과 죽음의 나라에서 구속돼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나라로 이전됐다는 것이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의지하고 손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므로 바울의 칭의의 복음에 있어 우리가 세례 때 받는 '칭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다'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칭의는 종말에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완성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서 있어야 함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온전한 수확(구원 혹은 칭의의 완성)은 종말에 받도록 예약된 것이고 그러므로 그 때까지 유보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칭의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처음 고백할 때 다 이뤄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최후의 심판에서 그저 자동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성화라는 표현보다 칭의의 현재 단계라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라거나 "칭의론을 온전히 이해해 종교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등과 같은 김 교수의 주장도 그의 이런 관점에서 나온 것들이다.

물론 최후의 심판까지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음을 김 교수 또한 인정하나, 그와 같은 성령의 도우심을 부인하고 끝내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며 "이것은 내 주장이 아닌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김 교수는 강조한다.

그러나 김세윤 교수의 발표를 논평한 박형용 박사(합동신대 명예교수)는 "성경은 어디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의와 영생과 천국시민권을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박탈하시겠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그렇게 되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박사는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구속 사역이 실패의 사역이 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들의 칭의와 구원은 오로지 그 계획부터 완성까지 하나님의 작품이지 인간이 끼어들 틈이 없다"고 역설했다.

또 다른 논평자였던 심상법 교수(총신대)도 "칭의가 '과정' 혹은 '종말론적으로 유보된 칭의'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칭의 전반에 대해서 최종적이지도 않고 불완전하고 불총족한 것인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만 기여하는 속죄인가"라고 반문하며 "결국 김세윤 교수가 말하는 '완성된 칭의'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령의 도움에 의한 신자의 의로운 삶으로 결합된 것처럼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구원의 '탈락'을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박 영 돈 교수
고려신학대학원

박영돈 교수는 "칭의와 성화가 구별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생각에서 뿐이지 우리의 경험에서는 아니"라며 "만약 칭의가 참된 것이라면, 이는 필연적으로 그리고 지체없이 성화가 수반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이는 동시에 반드시 거룩해 진다"고 했다.

그는 "그것은 칭의와 성화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연합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이라며 "이 둘을 서로 분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찢어버리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아무도 칭의와 성화 둘 중 하나만을 체험할 수 없다. '성화 없는 칭의'나 '칭의 없는 상화'만을 체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해하는 것은 큰 착오"라며 "믿기만 하면 거룩함의 열매가 전혀 없어도 구원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칭의론을 완전히 곡해한 이단적인 발상"이라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이어 "김세윤 교수는 칭의와 성화를 선후 관계로 설정함으로 구원파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 칭의와 성화를 다시 하나로 묶는 해석학적인 틀을 제시했다"며 "곧 칭의와 성화는 동일한 특성과 의미를 띠며 '이미와 아직'의 종말론적인 구조 속에서 같이 진행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개혁주의 구원론의 구조에서도 칼빈이 강조했듯이 칭의와 성화는 한 순간도 분리되지 않고 긴밀하게 연합되어 신자의 삶 전 과정에 병행된다"며 "이런 면에서 김 교수의 견해와 개혁 구원론의 입장은 일치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그럼에도 두 입장이 갈라서는 지점은 칭의와 성화를 동일시하는가, 아니면 구별하는가의 문제"라며 "칼빈처럼 칭의와 성화의 연합된 구조 뿐 아니라 구별된 특성도 조화롭게 이해하는 것이 구원은혜의 다양한 측면을 더 부요하고 풍성하게 드러내는 성경적인 관점을 더 잘 포착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칼빈과 개혁주의 입장은 칭의와 성화가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의 전 과정에서 긴밀하게 연합하여 병행된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동일성과 함께 그 초점과 특성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의미적인 구별성을 강조한다"며 "칼빈은 칭의와 성화는 단일한 은혜의 두 면으로서 우리의 체험에서는 비록 동시적이며 구별되지 않지만 우리의 사고에서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고 했다.

특히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동일시해 혼합하면 칭의뿐 아니라 성화도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우려했다"면서 "그렇게 되면 칭의가 우리 밖의 의로움에 근거해서 영 단번에 주어진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라는 특성이 흐려지며 이 선물을 누림에서 오는 감사와 확신, 자유와 담대함이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큼 자신이 실제 의롭게 되고 거룩해졌는지 확신할 수 없는데서 오는 불안감과 칭의의 은혜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가시지 않을 것"이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얻어내려는 헛된 수고와, 칭의의 은혜와 자신의 경건을 교환하려고 율법주의의 굴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바탕 위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은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그래서 칼빈은 칭의와 성화의 구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확신과 감사, 자유를 앗아가는 불안한 성화의 기반을 허물과 진정한 성화가 진행될 수 있는 견고한 은혜의 반석을 새로 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세윤 교수처럼 칭의의 복음을 남용하는 것을 막으려고 칭의가 취소될 수 있고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하면, 정작 그 피해를 입는 이들은 참된 신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칭의의 취소나 구원의 탈락을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신학적인 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의 칭의가 성화의 열매에 따라 심판받는 종말에까지 유보된다면 누가 주의 심판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며 "사실 칭의의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나 방종의 라이선스로 남용되지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오히려 위로와 인식의 유일한 근원이며 경건의 바탕으로 작용한다. 칭의론의 남용을 막으려다가 오히려 참된 신자의 위로와 성화의 원동력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2016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 성 대 학 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온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총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 이동규 박사 학장 :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 로 몬 대 학 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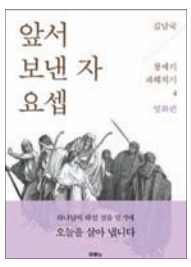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앞서 보낸 자 요셉
김남국 | 두란노 | 260쪽



어떤 상황에서도 바르게 살아가는 싸움을 하라, 요셉처럼! 요셉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다. 이 책은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열두 아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창세기 37~50장은 첫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택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둘째, 그들 중 누가 우월한 위치에서 영적 주도권을 가져가는지, 셋째,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 준다.

주기도문 파토스
오강수 | 행복한사람 | 156쪽



주기도문(主祈禱文)은 '신(信)이(以)심(心)전(傳)심(心)'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주기도문'(Lord's Prayer)은 '산상보훈'(마 5:1~7:29)의 중심에 있다(마 6:1~13). 이것은 주기도문이 산상보훈의 핵심이며, 기도가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중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신앙의 삶을 위한 절대적인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 손잡고 말씀나라 여행
편집부 | 에브리데이 | 128쪽



토론 통해 초등학생 때부터 기독교 세계관을 심다! 서울 석관동 맑은샘광천교회(이문희 담임목사)에서 발간한 주일학교공과는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아이들이 토론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공과는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12년 동안 학기 당 1권씩 총 24권을 발행할 계획인데, 집필을 시작해 현재 8권이 발간되었다.

자유와 책임
키릴 교종 | 대한기독교서회 | 30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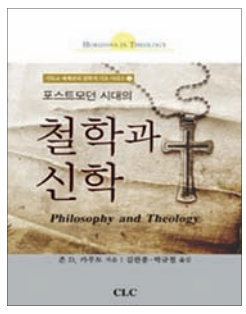
이 책은 지난 약 25년에 걸쳐 출판된 러시아정교회 키릴 교종의 논문과 연설문을 모은 것으로 인간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이해를 펼쳐 보인다. 신학자이자 설교가로 잘 알려진 키릴 교종은 정교 전통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으면서도 현 시대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현대적 흐름을 민감하게 포착하여 현대 세계의 도전에 적합하고 필요한 대답을 들려주고 있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다원주의' 거부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단순화된 시대 구분을 통해 신앙과 이성의 변화들에 대한 탐구



포스트모던 시대의 철학과 신학
존. D. 카푸토
CLC | 240쪽

이 책은 전근대(pre-modern), 근대(modern), 포스트모던(post-modern)이라는 널리 통용되는 단순화된 시대 구분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들에서 신앙과 이성의 변화들에 대한 탐구이다.

저자가 주장하려는 바는 포스트모던이 근대성에서 공격을 받았던 종교와 신학에 탈출구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던주의자들은 다르게 생각한다. 그들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거나 혹은 중심이 없는 느슨한 네트워크 안에 모여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인터넷 상에서 '중심, 시작, 끝'이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 반문하는 것이다.

근대주의자들은 지도 위에 그려진 명확한 선을 선호한다. 반면 포스트모던주의자들의 지도 위에 그려진 실제 영역은 훨씬 더 복잡하고 불규칙적이다.

근대주의자들은 수학적 정밀성을 묘사한다. 반면 포스트모던주의자들은 근대주의자들에게 괴델(1906-1978, 체코 수학자·논리학자)의 '비결정성 원리'를 상기시키고 싶어 한다. 근대주의자들은 뉴턴 역학에 만족한다. 그러나 포스터모던주의자들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의 역설들을 제시한다. 근대주의자들은 모든 것이 규칙에 결속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포스터모던주의자들은 공식화되지 않은 것과 프로그램화되지 않은 것을 좋아한다. 간단히 말해, 오늘날 우리는 불규칙성, 차이, 다원성, 관점의 다양성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과 '이성'이라는 단어의 분위기와 복잡성을 인식하면, 신앙과 이성의 해묵은 갈등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다. 해석학적 관점에 따르면, 신앙은 틀(frameworks), 언어, 패러다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신앙의 이러한 타당성은 확고부동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관점은 끊임없이 수정되고, 개혁되어야만 한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들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성은 특정 상황의 요구에 대비하는 방식들의 복잡한 집합을 의미한다. 이성은 상황, 다양한 목소리, 그리고 다양한 관점들에 접근하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다는 인식을 의미한다.

저자는 이 책의 제목이자 주제인 '철학과 신학'에 대해, 난해한 신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와 동행하는 여행자라고 언급한다.

여기서 말하는 난해한 신비란 태고적부터 철학과 신학을 움직여 온 신비를 말한다. 또한 둘의 관계는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풀 수 없는 신비적 관계와 영역이다. 저자는 이러한 둘의 신비적 관계를 '인생의 열정'이라고 정의한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갖게 되는 열정, '이성과 기도(종교)'의 신비적 관계를 '철학과 신학'으로 설명하고 있다.

강도헌 기자
크리스찬북뉴스 운영자



미주 크리스찬 문인협회 '2016 송년회 및 특강'

인생 여정(시편23:1~6)



김신영 목사 (설교)

시편의 진주와 같은 23편의 말씀은 '삶의 여정 속에서 겪은 슬픔과 탄식에서도 낙망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시다. 그래서 칼빈은 시편 23편을 '황금 시편'이라고 칭했고, 루터는 '슬퍼하는 자를 기쁨의 잔이 넘치도록 만드는' 시라고 했다. 왜냐하면 저자 다윗이 어린나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 받고부터 사울 왕에게 쫓기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기까지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지은 시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의 순간에 낙담하지 않고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계셨음을 깨달으며 오히려 감사의 찬양을 부른다. 무엇 때문일까?

첫째, 여호와가 목자이었기 때문이다(1~3절). 다윗의 삶은 늘 푸른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었다. 사울 왕과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절망적인 시간들... 그러나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자신의 생명과 삶의 여정을 이끄시는 목자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으로 위로를 얻었다. 비록 삶의 환경과 상황이 다윗을 좌절과 절망의 순간으로 넘어뜨릴지 몰라도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을 젖먹이는 아기와 같이 그 생명을 품으셨음을 인식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장차 오실 메시야 예수께서 죄인의 생명을 십자가의 피로 품으신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목자는 결국 양의 생명을 품고 좌절과 절망의 삶의 여정을 지나 그 생명이 쉴만한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신다(요 10장). 그곳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왕국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과 기쁨이 넘치는 영원한 나라다.

둘째, 하나님은 한 해의 모든 순간에 함께 계셨다(4절).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왕이시다. 그러니 어떤 해도 두려워 말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의 여정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셋째, 목자는 종말론적 축복으로 이끄신다(5~6절),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악인들에게 당한 고난으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품으신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던 악인들이 보란듯이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며 나를 높이시고, 내 잔이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문학과 인생



백훈 소설가(특강)

문학인에게 있어서는 문학이 곧 인생이라 할 수 있다.

축구 선수 차범근에게는 축구가 인생이듯이, 박세리에게 물으면 골프가 인생이듯이….

여기엔 우열이 있을 수 없다. 다만 그 분야를 얼마나 열심히 치열히 살았는가에 대한 자답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것이 내 인생의 의미였다면 성취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다. 기독교도인으로서 말한다면, 나는 그저 열심히 문학작업을 할 뿐 세상적 평가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뜻이다.

기독교 문학이란, 기독교를 소재로 다룬 것이면 다 기독교 문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작가가 기독교인이라면 설사 기독교를 소재로 다루지 않았어도 기독교 문학이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ㅎ는 것이다.

모든 문학 작품은 어떤 의미로는 '작가의 자서전'이라는 말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독교 문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으면 더욱 치열하게 작품을 쓰자. 성경의 시편을 몇 번이나 읽었는가? 아가서를 몇 번이나 읽었는가? 한편 한편 읽으며 묵상을 했는가? 이런 기본 소양도 없이 찬양시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문학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작품은 금방 가려낼 수 있다. 부끄러운 작품은 쓰지 말자.



회장 정지윤 목사(우)가 김기형 이사(좌)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회 김학청 목사(이사).



이산 회원(좌)이 정지윤 회장에게 감사의 선물을 증정하고 있다.



최 루시 회원(시 낭송).



회원들의 모습.



신입회원 노봉환 목사.



근우회 김복림 회장이 정지윤 회장에게 '세계 평화상'을 수여하고 있다.



서용석 시인(알라스카).



나두섭 이사와 송종록 부회장.



특송하고 하는 김숙영 교수.



회원들의 즐거운 송년파티 모습.



A newspaper of reconciliation led by the Holy Spirit

CHRISTIANITY DAILY

SUBSCRIPTIONS:
Don't miss out on the news!
To subscribe,
please e-mail us at
christianitydaily@gmail.com.

Tel. 213-739-0403 www.christianitydaily.com THURSDAY, December 15, 2016 Vol. 81

Korean Pastors, Seminarians Gain Knowledge on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 attendee of the recent retreat for pastors, seminary students, and their spouses regarding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makes a presentation on a small group project. (Photo courtesy of KFAM)

About 25 Korean pastors, seminary students, and their spouses attended a two-day retreat on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from December 8 to 9 at the Holy Spirit Retreat Center, located in Encino, CA.

The retreat was hosted by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a non-profit which offers counseling services, foster care services, and awareness seminars, among other services, and was offered free of charge with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Blue Shield Foundation and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to help raise 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among the Korean pastoral community.

Those who attended the retreat were able to learn more on the forms, patterns, and cycles of domestic violence, and also heard about actual incidents of abuse that have occurred in Korean families and couples.

"KFAM believes that the role of Korean churches in raising awareness and preventing domestic violence is significant," the organization stated. "We plan to have a conference related to the topic during the early half of next year, and another retreat during the latter half."

KFAM also hosted a 40-hour training on domestic violence specifically for pastors earlier this year from August to November, during which Korean pastors learned on various aspects that relate to domestic violence, including the history of domestic violence, responsibilities of the perpetrator, safety measures, and legal support, among others.

Faith Harvest Church Hosts Christmas Party for Children and Families of Incarcerated Individuals

BY RACHAEL LEE

Faith Harvest Church, located in North Hills, CA, hosted a rather special Christmas party on Sunday — one for the children and families of incarcerated individuals.

The party was hosted through the 'Angel Tree' program of the Prison Fellowship, a non-profit which ministers to individuals within the prison system, prepares them to readjust to life outside of prison, and helps them to maintain healthy relationships with their families. Through the Angel Tree program, Faith Harvest adopted 50 children this year to give them Christmas gifts and host a Christmas party for them and their families.

Faith Harvest Church has participated in the Angel Tree program for the past six to seven years, said Pastor Edmund Lee of Faith Harvest. This year, about five families came to the Christmas party, which included a time of icebreaker games, crafts, dinner, Christmas carols, and a presentation of the gospel. Church members also prayed for each family, and delivered the Christmas gifts to the children, which contain messages from their incarcerated parents.

"Our role is not to say, 'This is from us,'" Lee said, "but to be the conduit for their parents, and to say, 'They are thinking of you, they care about you, and they love you.'"

One of the unique aspects of the Angel Tree program is that it matches the church with families of incarcerated individuals who live within the area, explained U-chin Jang, who has coordinated the Angel Tree program at Faith Harvest for the past several years.

"It allows a way for us to be a presence in the community," said Jang. "We're just a Korean church — a lot of the people that we serve through Angel Tree wouldn't normally come to our church, and a lot of them don't go to church at all. So it's a good opportunity for us to bless them and serve them."



Faith Harvest has hosted a Christmas party through the Angel Tree program for the past several years. This picture was taken during a Christmas party hosted four years ago. (Photo courtesy of Faith Harvest Church)

According to the Pew Charitable Trusts 2010 study, 'Collateral Costs: Incarceration's Effect on Economic Mobility,' some 2.7 million children in the U.S. have parents who are incarcerated. More than half (54 percent) of those in U.S. prisons are parents with minor children aged 0 to 17.

Christianity Daily Presents Awards to Seminary Students

Christianity Daily, in partnership with with United Breakthrough Ministries (UBM) and Bliss Travel, hosted an essay competition for which participants were required to attend a seminar on the Old Testament and submit an essay in response to the seminar.

Thirteen individuals were given awards, five of whom were present at the ceremony on Monday morning. The winner of the first place award, Jae Hwan Choi from Gateway Seminary, will be receiving a used car, while winners of the second and third place awards, Hyun Ae Lee from Biola University's Talbot School of Theology (second place), Daniel Noh from Gateway Seminary (tied for third), and Timothy Song fro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ied for third), received monetary awards of $1,000 and $500 respectively. Seung Kwon Myung from Grace Mission University, who received the 'special award,' received a plane ticket to Kentucky as well as a ticket to tour the Ark Encounter exhibit which opened earlier this year.

Rev. Andrew Kim, the senior pastor of UBM, and Rev. David B. Oh, the senior pastor of Southern California Bethel Church who is also the chairman of the board for this newspaper, were also present at the ceremony and presented awards.



Rev. David Oh presented the first place award to Jae Hwan Choi at the awards ceremony which took place on December 12.

New Pew Study Shows Differences in Levels of Education Across Religious Groups

A recent Pew study on the state of education among different religious groups around the world showed that Jews were more educated than other groups, followed by Christians.

Jewish adults aged 25 and older have an average of 13.4 years of education, Christians approximately 9.3 years, atheists 8.8 years, Buddhists 7.9 years, while Muslims and Hindus each have an average of about 5.6 years of education.

The Jewish population is mostly concentrated in the US and Israel, which are developed nations, but Christians are scattered all around the world, in both developed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which might explain the difference in the average level of education among these groups.

Pew based its findings on census and survey data from 151 countries. The study also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education levels among different religious groups and genders within a country.

The Pew report said that in sub-Saharan Africa, Christians were more highly educated than Muslims.

Disparities in educational level along gender lines were higher in some groups as compared to others.

Muslim men were more highly educated with 6.4 years of education, as compared to Muslim women who had an average of 4.9 years of education.

Hindu women (4.2 years) were also less educated than Hindu men (6.9 years).

However, the gender gap in the educational level among the various religious groups seems to be decreasing over the years, according to the study.

The average level of education in different global regions is far from homogenous. Most of the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just a little over primary levels of education. Global average years of schooling among women is seven years, and for men it is eight years.

About 19 percent of the world population have no formal education.

Only 14 percent of adults over the age of 25 in the world have had higher education or have a university degree.

Compassion International Faces Obstacles in Continuing Work in India

Compassion International may not be able to provide its services to the poor in India any longer if the Indian government does not remove its restrictions on the organization, the non-profit announced on Tuesday.

"Due to recent changes to the Indian governmen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Foreign Contribution Regulation Act (FRCA), Compassion has not been allowed to send funds to its more than 500 local child development projects throughout India," the organization stated in a press release. "This change has directly impacted nearly 145,000 children registered in Compassion's program within the country."

Compassion International began its branch in India in 1968, and has been operating 580 child development centers in the country until the recent changes in the FRCA.

"Sixty-three of Compassion's partners were denied FRCA approval," Compassion stated. "Despite repeated requests, the Indian government has not provided an explanation for these denials. Compassion made the difficult decision to end its partnership with the 63 centers, impacting more than 14,500 Compassion children in India."

The Indian government mandates NGOs to receive prior approval to be able to accept foreign funds.

However, Compassion said on its website that "after months of unsuccessfully trying to obtain prior clearance, we have concluded that the clearance process is fiction. We have never been offered an explanation for this action in the nine months since the order was issued."

"In November, Indian bureaucrats refused to renew foreign funding licenses for Compassion and at least 24 other NGOs - severely disrupting our humanitarian work," Santiago Mellado, the president and CEO of Compassion International, wrote in an op-ed for The Hill.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in India said that the registration of Compassion was not renewed because it was involved in "activities not conducive to national interest."

Indian security agencies claim that the annual $50 million humanitarian fund sent by Compassion to India is used to force conversions. But, the charity's International Operations report submitted to the U.S.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says that a very small portion is used in education, and the rest is used to provide food and humanitarian assistance for children living in dire poverty.

"Compassion's primary mission is to release children from poverty, not convert them," the report notes.

To find a way to continue operations and funding for its work in India, Compassion International has testified before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Foreign Affairs Committee regarding the issue, and has urged its supporters to write to their congressmen, providing a pre-written letter.

"We want nothing more than to comply with Indian law and find favor in the eyes of those with the power to authorize our ongoing care to these children who are suffering in extreme poverty," Mellado said.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U.S. Pastor Imprisoned on 'Terrorism' Charges in Turkey

A Turkish judge sent US pastor Andrew Brunson to jail in Izmir on terrorism-related charges on December 9, about two months after he and his wife Norine were detained in October.

They were residents of Turkey for the last 20 years, and were detained for "activities against national security," according to The Globalist.

His wife was released on October 19, but Brunson remained in prison at the Harmandali Detention Centre in Izmir, from which he was transferred to a counter-terrorism center on December 8 and was presented in court the next day.

"Andrew is being questioned right now," his wife Norine said in a statement on Facebook. "Please pray for [Him] to give presence, peace [and] words of vindication."

She urged Christians in their Facebook website to pray that "all lies [and] false accusations...be unstuck in the name of Jesus," and for her husband "to be set free in a quick resolution."

According to a World Watch Monitor report, the lawyer told Norine that her husband was accused of having links with the Fetullah Gulen movement, which the government says was behind the failed military coup on July 15 this year.

The court said that the "terrorism" charges were levied by a "secret informant." He was denied access to a lawyer until the December 9th court hearing.

The Brunsons have lived in Turkey for the last 23 years and are heading the Izmir Resurrection Church in Alsancak, which has about 30 to 40 members. They have three children who are studying in the US.

The church members tried to send personal items to the pastor and his wife while they were detained, but the items were returned by the authorities. Later, police officials permitted clothes and medicines to be brought in. However, the Bible was not allowed inside the prison.

Turkey is reported to have cracked down on Protestant pastors in the last four years, and to have not extended their visas and residence permits.

"Missionary activities are still considered a criminal offense in Turkey," said Soner Tufan, a spokesperson of the Association of Protestant Churches of Turkey.

"Our country is in a very bad situation in terms of free speech and religious liberty."

Christian Filmmakers Challenge Minnesota Law

Christian owners of a wedding filmmaking company have filed a lawsuit against the Minnesota commissioner of human rights and attorney general to challenge state laws that compel them to produce videos of same-sex marriages against their religious beliefs.

Carl and Angel Larsen, who started Telescope Media Group in 2008, are being represented by 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

"The whole purpose of Telescope, regardless of what project we're doing, is to glorify God and make much of Him in every project that we do," said Carl Larsen.

The Minnesota Human Rights Act mandates them to film homosexual weddings along with the heterosexual ones, which involves creating speech, according to the plaintiffs.

Failing to comply with the law renders them liable to pay civil penalties, triple compensatory damages of up to $25,000, and up to 90 days in prison.

"The human rights department has been very aggressive stating on their website and in various other official proclamations that they intend to enforce the law. A law that has criminal penalties as part of what they could face, fines and even jail time as possible penalties," said ADF legal counsel Jeremy Tedesco.

Human Rights Commissioner Kevin Lindsey did not seem to have a favorable view of the couple's stance on religious freedom.

"This lawsuit is part of a pattern of nationwide litigation that is now aimed at eroding the rights of LGBTQ Minnesotans," Lindsey said in a statement.

"This could open a real wide door to people citing religion in turning away customers they don't like," said Teresa Nelson, legal director of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Minnesota. "It opens the door to a vast array of discrimination ... if the court sides with the plaintiffs."

ADF said that government is overstepping on rights of religious people by forcing them to express thoughts or ideas against their beliefs.

"This is a right everybody has, not just a right in the realm of marriage," said Tedesco.

"We wouldn't want a Democratic speechwriter being made to write speeches for Trump under force of law or an atheist singer forced to sing Christian hymns at a church," Tedesco continued. "These are choices creative professionals can make. The worry is if the government can take it away from people like the Larsens, what's to stop it from taking away from everyone else?"

If the court rules in favor of the company, the couple will be able to publish a website disclaimer to inform viewers that Telescope cannot film same-sex marriag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ligious beliefs.

The Larsens are not taking up wedding filming projects until the court pronounces the verdict.

Pro-Choice Activists File Lawsuits Challenging Abortion Regulations

Planned Parenthood has filed lawsuits against abortion restrictions in three states and plans to sue every state that has enforced similar regulations or passed pro-life bills.

"We are going to fight back state by state and law by law until every person has the right to pursue the life they want, including the right to decide to end a pregnancy," said Dr. Raegan McDonald-Mosley, Planned Parenthood's chief medical officer.

The lawsuits were filed by Planned Parenthood in association with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and 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 in the states of Missouri, Alaska, and North Carolina in late November.

These three states require some or all abortions be performed in hospitals or surgical centers. North Carolina also bans abortions after the 20th week of pregnancy, unless the mother's life is in danger.

The lawsuit alleges that the abortion restrictions have false premises of protecting women from unhygienic abortions, risks posed by abortions carried out in the absence of trained personnel, and botched abortions. The plaintiffs also claim that women have to travel to other states because of these regulations.



Pro-choice activists filed lawsuits in three states in late November. These two photos show two separate protests. (Photo: University of Toronto Students for Life / Kate Ausburn / CC)

The plaintiff attorneys told The Virginian Pilot that the lawsuits are a follow-up to US Supreme Court's June verdict which threw out the abortion restrictions in Texas.

Texas had imposed regulations on abortion providers so that they meet hospital standards and have admitting rights at nearby hospitals where patients could be taken in emergency complications.

The court ruled 5-3 that women face no significant risks while undergoing abortions, and that only in rare cases can a woman face botched abortions which is a condition that need not to be prepared for through state-mandated admitting rights.

"There was no significant health-related problem that the new law helped to cure," Justice Stephen Breyer wrote. "We agree with the District Court that the surgical-center requirement, like the admitting-privileges requirement, provides few, if any, health benefits for women, poses a substantial obstacle to women seeking abortions, and constitutes an 'undue burden' on their constitutional right to do so."

The restrictions in Missouri are similar to those proposed in Texas. Owing to the regulations, Missouri has only one abortion provider in St. Louis. Alaska banned partial birth abortions in 1998, and the state currently has a ban on second trimester abortions.

Dozens Killed and Over 40 Injured in Cairo Cathedral Bombing

At least 25 people, most of them women, were killed and about 49 were injured in a blast inside Cairo's Coptic Cathedral complex on Sunday.

A bomb exploded in the chapel as Sunday Mass was about to end. President Abdel Fatah al-Sissi said at the state funeral for the victims attended by hundreds of mourners that a suicide bomber carried out the attack. He identified the bomber as a 22-year-old man who wore an explosive vest which he detonated in the chapel. The Interior Ministry released a picture of the alleged suicide bomber.

Sissi said that four other suspects in the attack have been arrested.

Three days of mourning has been declared in the country.

Coptic Pope Tawadros II cut short a Greece tour and also conducted a private service for the family of the victims.

"This calamity is not against the church but against the homeland, [against] all of Egypt," Pope Tawadros said after the service. "We are in a lot pain because of this evil ... but we are pleased they passed away during prayers, this is the best time to die ... during this [holy] month."

Coptic Christians make up about 10 percent of the Egyptian population and are vulnerable to mob attacks triggered by blasphemy accusations and building permits for new churches.

"Egypt's government needs to ensure immediate protection for the Coptic community, especially during the upcoming Christmas holiday," Sarah Leah Whitson,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director at Human Rights Watch, said in a statement. "The victims deserve a credible, transparent investigation that brings the perpetrators to justice and is crucial for ending such attacks."

This is the second bombing attack in Cairo this month. Last week, a car bomb on the main road leading to Giza pyramids killed six policemen in the city. The attack was claimed by a militant group affiliated with Muslim Brotherhood.

In 2011, about 23 Christians were killed by a suicide bomber at a church in Alexandria.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 ynccla.org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1병 Free)
$267+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WHO is he?
개발자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Zn Cr Zn Cr Zn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프로지 골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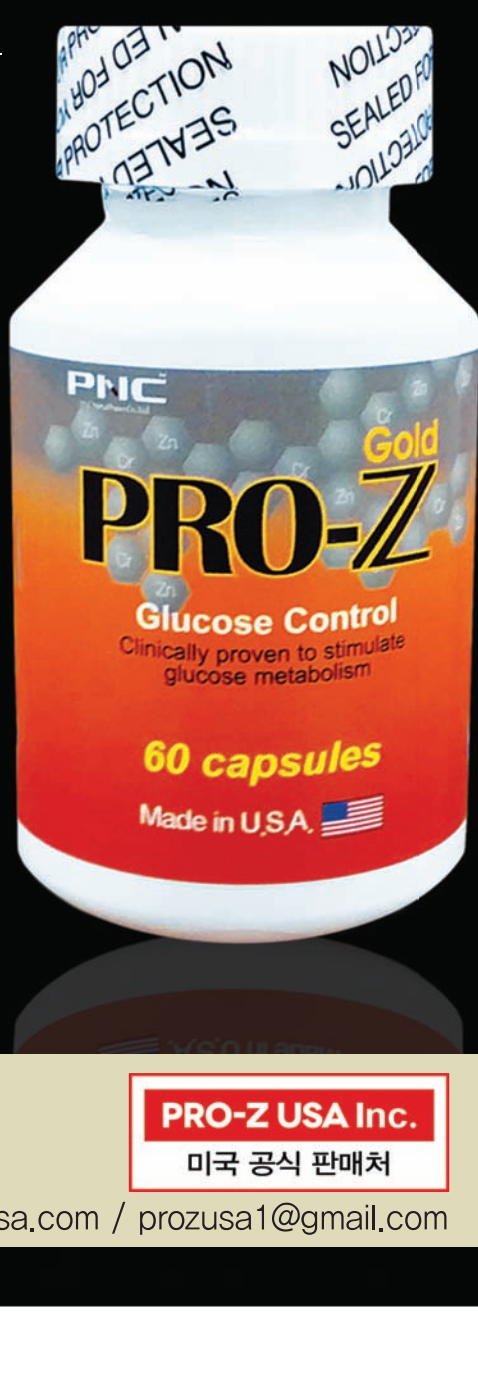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방송인 **송해** 선생님의
건강지킴이, 프로지골드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